

경북의사회가_만들어가는_따뜻한 이야기

경북의사회

2011 Summer Vol.42

공지사항

2011년도 회원정기신고 및 의사회비 납부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 안내
 병·의원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안내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적용관련 해설
 당뇨비용제 신설 급여기준 개정 관련 질의응답(Q&A)
 미용목적 성형수술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관련 안내



경상북도 의사회

Gyeongbuk Medical Association

H.pylori 차단, 산분비 억제, 점막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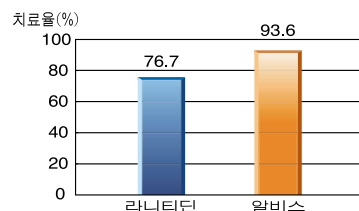


위염·위궤양을 우수하게 조절한다 - 알비스

3가지 성분, 3가지 효과를 한 알에...

알비스는 궤양의 이상적인 치료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항궤양복합신약으로 강력한 산분비를 억제하는 라니티딘, 우수한 점막보호작용의 수크랄레이트, H.pylori를 억제하여 재발율을 낮춰주는 비스무스가 배합되어 알비스만으로도 모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비스의 우수한 궤양치료효과



• 대상: 십이지장궤양 피험자 • 시험약: 라니티딘(대조군), 알비스정(시험군)
• 투여기간: 4주 Ref) 임상2상 시험보고서(1998)



[성분·함량] -1정(690mg)중-

염산라니티딘 (USP) 84mg
구연산비스마스칼륨 (식약청고시 제 98-127호) 100mg
수크랄레이트 (약전) 300mg

※ 제품에 관한 문의사항은 080-550-8308~9로 문의 바랍니다.

알비스의 특 장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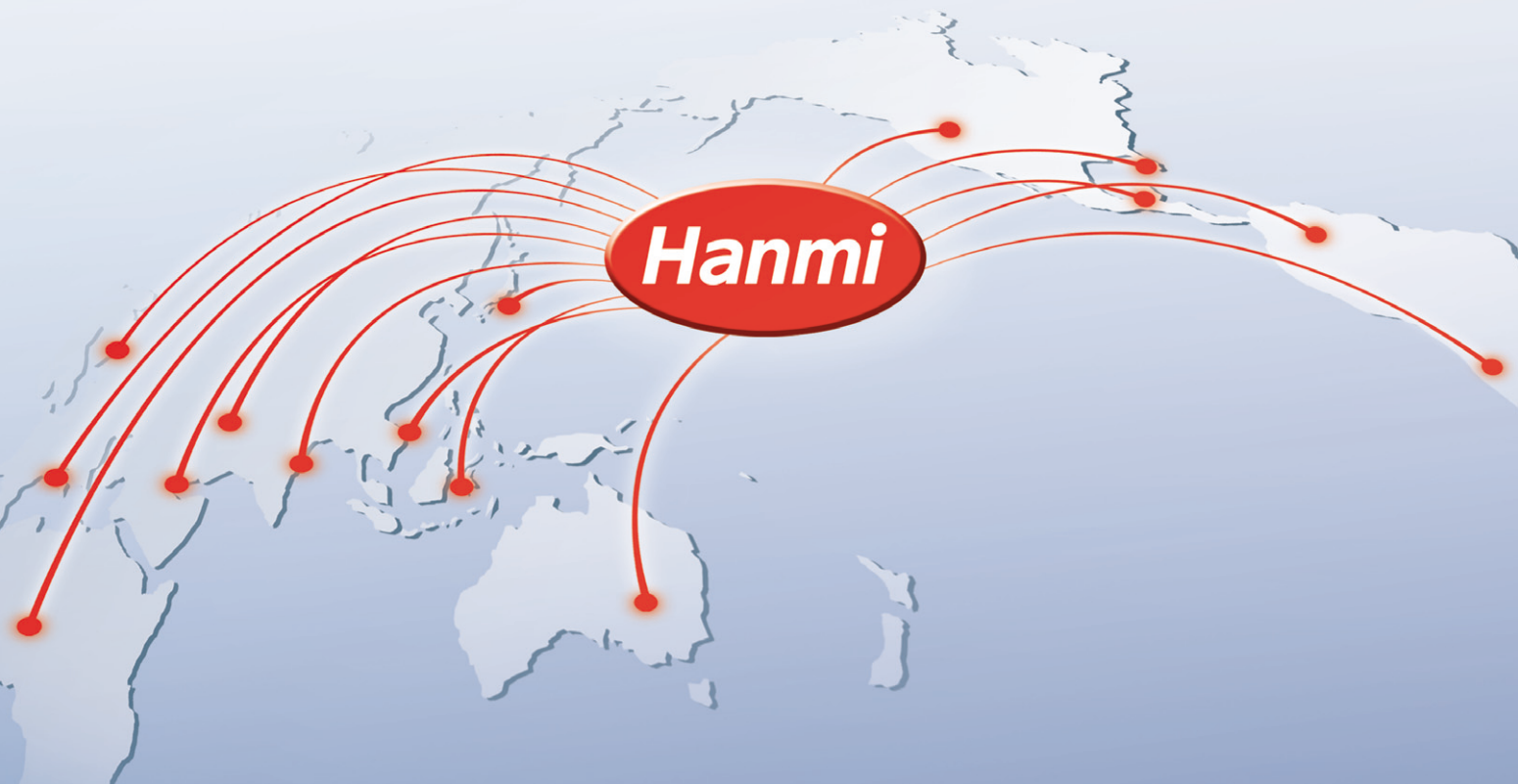
- 빠르고 확실한 속쓰림 제거효과
- 헬리코박터 파이로리의 억제효과
- 점막보호작용이 우수하여 균질한 점막재생 촉진
- 복용이 편리하여 높은 궤양치료를



Esomeprazole

세계로 뻗어나가는 **Global 개량신약**

에소메졸[®] 캡슐
(Esomeprazole Stronti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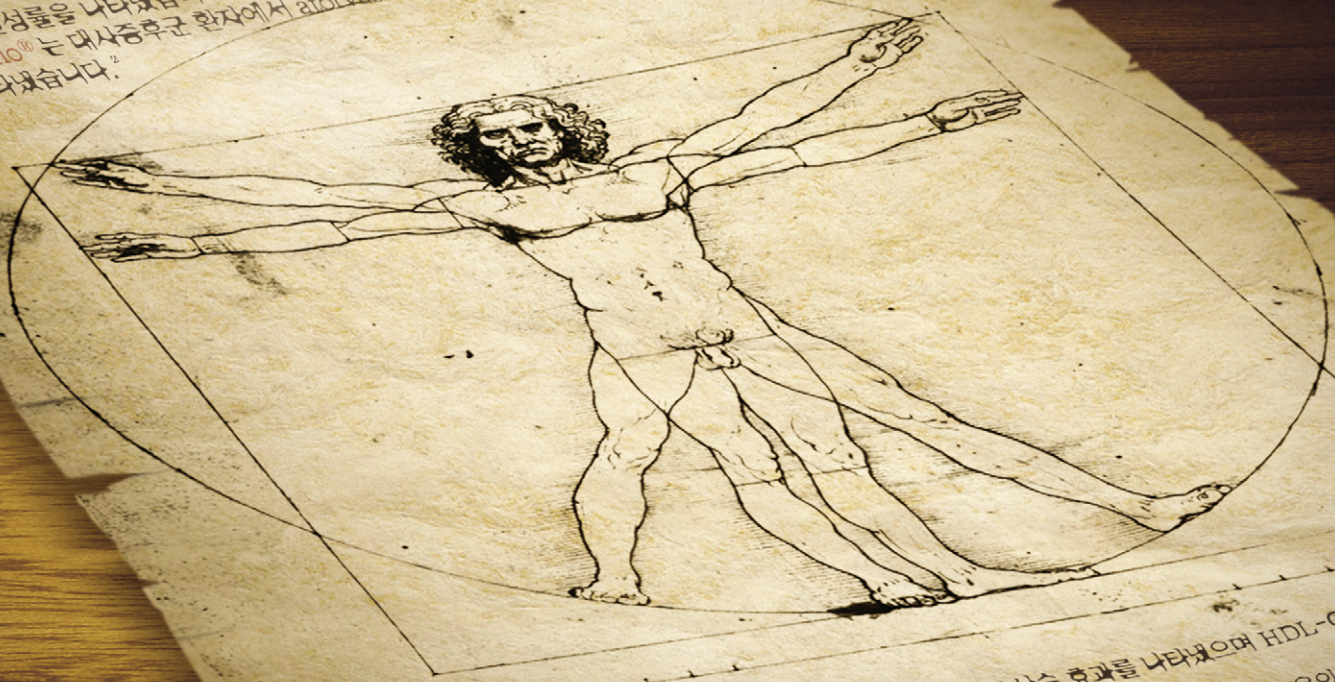


세계 최초 개량신약
신규염 Esomeprazole[®]
에소메졸[®] 캡슐 **20mg**
40mg
(Esomeprazole Strontium)

- 한미약품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Esomeprazole Strontium 개량신약으로 미국, 일본, 유럽 등 50여개국에 특허출원했습니다.
- PPI중 가장 강력한 위산분비 억제 효과를 나타냅니다.
- GERD치료에서 유지까지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Pitavastatin the Balanced Statin

Livalo[®]는 유럽 대규모 임상 시험에서 atorvastatin과 동등한 LDL-C 저하 효과 및
 목표 달성률을 나타냈습니다.
 Livalo[®]는 대사증후군 환자에서 atorvastatin보다 우수한 LDL-C 감소 효과를
 나타냈습니다.²



Livalo[®]는 atorvastatin보다 우수한 HDL-C 상승 효과를 나타냈으며 HDL-C
 상승 효과가 장기간 유지되었습니다.³
 Livalo[®]는 당뇨병을 동반한 고지혈증 환자에서 adiponectin의 농도를 유의하게
 증가시킵니다.⁴
 Livalo[®]는 고지혈증 환자의 Lipid profiles을 개선시킬 뿐 아니라 CVD의
 주요한 risk factor인 hs-CRP를 개선시킵니다.⁵

References

1. Budinski D et al. Clin Lipidol 2009;4(3):291-302
2. CHIBA study, Yokote K Atherosclerosis 2008;201(2):345-352
3. PIAT study, Jun Sasaki et al Clin Ther 2008;30:1089-1101 LIVES study, Teramoto T. et al. J Atheroscler Thromb.2009;16(5):654-661
4. Nomura S et al Thrombo Res 2008;122(1):39-45 Inami N et al Pathophysiol Haemost Thromb 2007;36(1):1-8
5. KISHIMEN study, Koshiyama H et al J Atheroscler Thromb 2008;15:345-350



12



16



발행인 이석균 편집인 김종영
 발행일 2011년 7월 6일
 발행처 경상북도의사회
 편집위원장 김재왕
 편집위원 김종영·문기혁·김종규·장태영
 [7012-8224]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로 82 (대현동)
 TEL. (053)941-7785 FAX. (053)941-5557
 홈페이지 www.igbma.or.kr
 제작처 선진에드_대구광역시 서구 평리6동 600-5
 TEL. (053)555-3336 FAX. (053)556-3273

- 6 특별기고**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 · 권영만
- 7 포토뉴스**
사진으로 다시보는 제33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어린이 그림 그리기대회 입선작
- 12 회무소식**
- 18 회무단신**
- 19 공지사향**
2011년도 회원정기신고 및 의사회비 납부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 안내
병·의원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안내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적용관련 해설
당뇨병용제 신설 급여기준 개정 관련 질의응답(Q&A)
미용목적 성형수술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관련 안내
- 29 분회 및 병원소식**
- 34 의료기관 개원현황**
- 35 지역의사회 탐방**
상주시의사회 / 군위군의사회 / 봉화군의사회
- 42 회원문예**
시_삼행시 및 사행시 입선작
오월의 장마 · 손장락
수필_이육사의 시상 · 최유근
"아프가니스탄" 청진기 · 이종규
설레임... 약간의 어색함...
그렇게 시작된 우리들의 첫 만남... · 황미림
mania를 찾아서_모터바이크 라이프 · 박재홍
- 57 의학 및 건강칼럼**
방사능 허용 기준치, 의학적인 안전 기준치인가? · 김익중

본회 주요 연중행사 일정

2011. 4. 7	제39회 보건의 날 기념식	2011. 10.	제43호 경북의사회보 가을호 발간
2011. 4. 24	제63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2011. 11. 6	경북의사회 추계학술대회
2011. 4. 25	제41호 경북의사회보 봄호 발간	2011. 12.	연말 복지시설 방문
2011. 5.	2011년도 회원정기신고	2012. 1.	시군의사회회장 및 임원 연석회의
2011. 5. 15	대구·경북 권역별 종합학술대회	2012. 1.	제44호 경북의사회보 신년호 발간
2011. 5. 22	회원 및 가족 등반대회(계룡산)	2012. 3. 3	2011년도 전체이사회
2011. 5. 28~29	제33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2012. 3.	2011년도 회무감사
2011. 7. 6	제42호 경북의사회보 여름호 발간	2012. 3.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
2011. 10.	전북·경북의사회 친선행사		



지역행복을 이끌어감으로써 지역민들로부터 한층 더 존경받는 선도그룹이 되길...

먼저 '경북의사회보'를 통해 독자들에게 인사 올리며, 특히 회보에 글을 게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1993년 창간되어 18년의 역사를 지닌 '경북의사회보'는 국민건강 증진과 의학 발전 및 회원 화합 등을 위해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경북지역 의사 회원들이 공유하고 홍보하는 중요한 매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1946년 6월 공식 출범하여 65년의 전통을 이어온 '경북의사회'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수준높은 교양과 전문적인 능력 등을 지닌 지도자들의 모임이라는 측면에서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모임에서 발간하는 매체에 본인이 제언을 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하지만, 경북의사회와 회보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기대하면서 소견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회보를 위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산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24시간 뉴스, 각종 인쇄와 인터넷 매체, 스마트폰 앱 등등. 이러한 여건속에서 경북의사회보는 지역 사회와 회원들에게 유익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북의사회보만의 고유한 매체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테면 경북의사회보만의 '특화된 창(窓)'을 만들어, 이 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주기를 기대합니다.

둘째는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경북의사회'는 지역의 리더 그룹입니다. 지역의 지도자는 개인을 떠나 우리 지역과 공동체, 나아가 나라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의료 분야에서의 여러분의 역할은 선진국형 의료복지를 앞당기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의 요건을 '세상에 대한 기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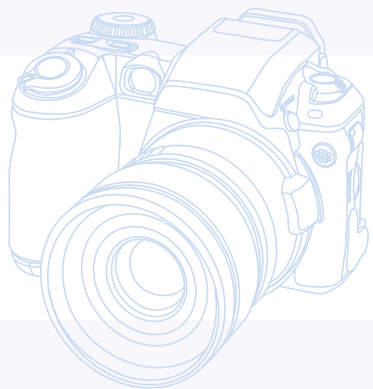
으로 만들어놓고 떠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만들었고,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있게 할 경북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선도그룹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지역의료 발전과 지역민의 건강을 위해.

셋째는 환자를 위한 특별한 배려입니다. 환자를 진료하는 시간을 지금의 시간에서 1배만 더 늘리는 '배가 운동'을 펼쳐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예컨대 한 사람 진료에 소요되는 시간이 2분이면 4분으로 말입니다. 21세기 리더의 핵심은 탈(脫)권위주의라고도 합니다. 현대 리더는 대중과 함께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할 수 있는 '이해와 공감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의사들에게는 이러한 리더십이 보다 더 요구되기도 할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 진정한 봉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경북의사회는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봉사 및 성금 지원, 의학 발전을 위한 교육과 연수, 보건의료정책과 관계법령 연구 및 분쟁 조정, 지역사회 참여 및 지원 활동 등으로 2,900명 회원들이 나름대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의 한 구성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서 본인이 제언한 내용은 경북의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러한 측면에 보다 더 힘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드리는 것으로 널리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경북의사회보'가 회수가 거듭될수록 나날이 새로워져 독자들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매체가 되고, '경북의사회'가 지역행복을 이끌어감으로써 지역민들로부터 한층 더 존경받는 선도그룹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 권 영 만



사진으로 다시보는
제33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춘계종합학술대회

1. 춘계학술대회 강의장
2. 이동석 학술이사의 진행
3. 학술대회 접수장면
4. 휴식시간을 겸한
홍보부스관람



제33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2011년도 회원 및 가족 친선의 밤
2011년 5월 28일(토) 18:00
www.igbma.or.kr
경주코오롱호텔



회원친선의 밤

1. 참석한 주요내빈들
2. 내빈과 함께 케익커팅
3. 장기자랑을 선보인
참석자들과 함께



제33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2011년도 회원 및 가족 친선의 밤
2011년 5월 28일(토) 18:00
www.igbma.or.kr
경주코오롱호텔





경북 의학제
1. 경북의학제 개회식 장면
2. 우승기 반환(동부지구)



Photo News



경북의학제

1. 2 어린이 그림그리기대회 시상
2. 테니스대회 참석한 선수들과 기념촬영
3. 삼행시 및 사행시 심사결과발표
4. 행운권 대상(구미, 김학근 회원)
5. 삼행시 대상(포항, 류형균 회원)
6. 종합우승에 남부지구(우승기수여)
7. 종합우승에 남부지구(우승기수여)
8. 다함께 기념촬영



어린이 그림 그리기대회 입선작

[주제 : 멋진 아빠 · 예쁜 엄마, 내가 제일 되고 싶은 것(나의 미래)]



대상 | 서지수
(경산, 제일연합안과의원 서형덕 회원 자녀)



금상 | 이승호
(경산, 소망의원 이성관 회원 자녀)



은상 | 노서연
(김천, JS성형외과의원 노유환 회원 자녀)



장려상 | 김도연
(경산, 도은정소아청소년과의원 도은정 회원 자녀)



장려상 | 김명현
(울진의료원 김형곤 회원 자녀)



장려상 | 김요한
(울진의료원 김현일 회원 자녀)



장려상 | 류동훈
(포항, 선린재활요양병원 류형균 회원 자녀)



장려상 | 서지완
(경산, 제일연합안과의원 서형덕 회원 자녀)

제33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성황리 개최

최신 의학지식을 배우는 춘계종합학술대회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을 위한 회원 및 가족 친선의 밤, 경북의학제 등 '회원간의 소통과 한호흡'을 주제로 "제33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행사가 2011년 5월 28일(토) ~ 29일(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경주코오롱호텔에서 개최됐다.



2011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본회에서는 회원들의 자질향상 및 새로운 의학지식 습득을 위해 지난 5월 28일(토)부터 5월 29일(일)까지 경주코오롱호텔 오운홀에서 회원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상진료에 도움이 되는 학술연제와 특강 및 시청각 교육으로 구성된 2011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춘계종합학술대회 첫날 학술강연에는 이동석 학술이사의 사회로 '대사 증후군의 최신지견'에 대해 나득영 동국의대 내과 교수 등 4편과 '2011 마약류 취급자 교육'의 강의와 신명준 회원으로부터 '시와 와인'에 대한 특강이 있었다.

둘째날에는 'ADHD & Tic disorder'에 대해 이종훈 대구가톨릭의대 정신과 교수 등 4편의 학술연제와 시청각 교육 2편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으며, 양일간 참석회원에게는

경주코오롱호텔 오운홀에서 회원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상진료에 도움이 되는 학술연제와 특강 및 시청각 교육으로
 구성된 2011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연수교육 12평점이 주어졌다.

본회 이석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제33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행사는 ‘회원간의 소통과 한호흡’을 주제로 우리 경상북도 전체 의사들을 위한 화합의 잔치 마당이다. 회원과 가족 모두 진료실에서 벗어나 모두 한마음이 되는 즐거운 날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본회 의사의 날 행사를 축하해 주기 위해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협회장의 축사와 더불어 본회 정만진 의장의 축사가 있었다.

회원 및 가족 친선의 밤 행사 개최

경상북도 의사의 날 행사를 축하하는 만찬과 더불어 그동안 같고닦은 장기자랑의 실력을 선보이는 ‘회원 및 가족 친선의 밤’ 행사가 5월 28일(토) 오후 7시 경주코오롱호텔 오운홀에서 한형원 기획이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이석균 회장을 비롯하여 의협 경만호 협회장, 본회 대의원회 정만진 의장, 최종두·변영우 고문

과 김성규 심사평가원 대구지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동 김주원 회원의 피아노 연주, 경주 정동우 회원 자녀 정은희 양의 한국무용, 경산 도은정 회원의 가요, 포항 김종호 회원의 1명의 정가(正歌), 류형균 회원 자녀 류동훈 군의 바이올린 연주, 안동 ‘우리도 가수다’ 팀의 공연, 영주 백현우 회원의 색소폰 연주로 그 동안 같고 닦은 숨은 실력을 선보여 참석한 회원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또한 참석한 회원과 가족들이 모두 함께 한형원 기획이사의 기타연주로 ‘토요일 밤에’, ‘여행을 떠나요’ 등 우리 귀에 익숙한 대중가요를 박수치며 부르는 등 모두가 하나되는 한마당 행사로 친목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흥을 돋우는 자리를 마련하여 큰 박수를 받았다.

경북의학제 ‘남부지구’ 우승

경상북도 의사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경북의학제는 회원 상호간의 화합과 체력증진을 위해 도내 4개 지구별 대항전으로 열리는 ‘경북의학제’ 행사가 5월 29일

연제 및 연자

■ 5월 28일(토) 14:00

- 2011 마약류 취급자 교육
- 이정기(경상북도 식의약품안전과 사무관)
- 중후군의 최신지견
- 나득영(동국의대 내과 교수)
- 골다공증 치료의 최신지견
- 김정국(경북의전원 내과 교수)
- 시와 와인 - 신명준(신명준외과의원장)

- 성격유형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 김대현(계명대 가정의학과 교수)
- 만성 신질환의 관리 및 최신지견
- 김용림(경북의전원 내과 교수)
- 비과세 저축 - 조만(신한금융 그룹)

■ 5월 29일(일) 09:00

- 초고령 국가, 미리 가 본 2050년
- 시청각(비디오)

- ADHD & Tic disorder
- 이종훈(대구가톨릭의대 정신과 교수)
- 이명 - 배창훈(영남의대 이비인후과 교수)
- 대장암 치료의 최신지견
- 최규석(경북의전원 외과 교수)
- 곰팡이에 의한 피부질환
- 서무규(동국의대 피부과 교수)
- 혈압과의 전쟁, 이렇게 시작하자
- 시청각(비디오)



나득영 교수 김정국 교수 신명준 원장 김대현 교수 김용림 교수 이정기 사무관 이종훈 교수 배창훈 교수 최규석 교수 서무규 교수



(일) 오후 1시 경주코오롱호텔 야외정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오전부터 비가 내리는 곳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300여명의 회원 및 가족들이 각 지구별 대표 선수로 참여하여 야외정원과 실내에서 경기를 펼쳤다.

먼저 OX퀴즈를 시작으로 단체경기인 바둑, 족구, 골프 피칭, 윗놀이(남성·여성), 탁구와 번외경기로 테니스대회, 어린이 그림그리기, 시조 및 3행시 등의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되었으며, 총점 216점을 획득한 남부지구가 종합우승을, 준우승에는 서부지구, 3위 북부지구, 4위 동부지구가 차지했다.

또한 회원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삼행시 및 사행시는 진료실에서 머무는

우리들이 계절과 자연의 아름다움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계절의 왕'과 '고운빛'을 시제로 선정하여 60여편의 출품작 중에서 선린재활병원 류형균 회원이 장원에 입선하는 영광을 안았으며, 어린이 그림그리는 '멋진 아빠, 예쁜 엄마'



마'와 '내가 제일 되고 싶은 것(나의 미래)'을 주제로 40여편이 출품되어 대상에 서지수 양(경산, 서형덕 회원 자녀)이 대상을 차지하여 트로피를 수상하였으며, 테니스대회는 김성연·전민 선수조가 우승을, 최진교·김성환 선수조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밖에 공기청정기, 자전거, 선풍기 등의 많은 경품을 준비하여 진행된 행운권 추첨 대상(에어워셔 공기정화기)에는 구미 김학근 회원이 차지하는 등 회원과 가족들의 뜨거운 호응과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내년에는 더욱더 알찬 행사로 개최할 것을 기약하며 제33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의 모든 행사를 마쳤다.

종합점수표

경기종목	동부	서부	남부	북부	
바둑	30	40	20	50	
족구	30	20	50	40	
골프피칭	40	50	20	30	
윗놀이	남성팀	40	30	50	20
	여성팀	40	30	50	20
탁구	30	40	20	50	
OX퀴즈	0	6	6	3	
종합점수	210	216	216(다승)	213	

- 종합우승: 남부지구
- 준우승: 서부지구
- 3위: 북부지구
- 4위: 동부지구

의협 제33차 종합학술대회 대구·경북권역 학술대회 성황리 개최



본회와 대구시의사회는 지난 5월 15일(일) 호텔인터블고 엑스큐에서 7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제33차 종합학술대회 대구·경북권역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대한의사협회 제33회 종합학술대회에 전회원이 하나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한 행사의 일환으로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권역별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대구·경북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오전 8시 30분부터 등록을 시작한 학술대회는 대구시의사회 김은영 학술이사의 사회로 진행, 김제형 대구시의사회장과 이석균 경상북도의사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의 격려사와 김성덕 대한의학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모두 5개의 세션에 A·B룸으로 나뉘어 열린 세미나는 김도원 교수(경북의전원 피부과)의 '아토피 피부염의 국소치료와 보습'을 시작으로 오후 3시 50분까지 모두 15명의 연자가 나와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꼭 필요한 최신 의학지견 등을 발표했다. 특히 B룸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제33차 학술대회 서울 현지 강의를 생중계 하여 참석자들에게 더욱 다양한 내용의 최신 의학지견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을 내 가족처럼 환자를 내 생명처럼'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션 1에서는 △아토피 피부염의 국소치료와 보습(경북의전원 피부과 김도원 교수) △쉽게 이해하는 성조숙증(경북의전원 소아청소년과 고철우 교수) 등 2개의 연제가 발표 됐다.

이어 세션 2부터는 A·B 룸으로 나뉘어 진행, A룸은 대구시의사회 김은영 학술이사의 진행으로 △대장암의 조기진단과 치료(계명대의대 소화기내과 김은수 교수)와 △갑상선암의 조기진단과 치료(영남의대 내분비내과 원규장 교수) △전립선암의 조기진단과 치료(동국의대 비뇨기과 이경섭 교수) 등 3개의 연제가 발표 됐으며, B룸은 경상북도의사회 이동석 학술이사의 사회로 진행되어 △병원 마

케팅 성공 노하우(메디코리아 이현주 팀장)와 △직원관리(노무법인 율촌 김기선 대표이사) 등의 강의가 있었다.

세션 3은 런천특강으로 △한국인의 암(한림대 사회의학교실 김동현 교수)에 이어 세션 4의 A룸에는 △생활속 사진촬영 노하우(파티마여성병원 류형우 원장) △폰맵 탈출을 위한 스마트폰 안내(포엠데이터 지상철 대표이사) △골프 한타 줄이기 위한 마인드 컨트롤(대구경북프로그프협회 전영태 회장) 등 3개의 연제가 발표 됐으며 B룸에는 △의료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발성법, 대화법, 연설법(SBS 최영주 아나운서) △남성대사증후군 환자에서 남성 호르몬 보충요법(타워비뇨기과 유정우 원장) 등의 강의가 있었다. 세션 5에서는 △고혈압 심장병치료를 위한 생활습관의 개선(대구가톨릭의대 내과 류재근 교수) △일상생활 속에서 치매 진단 및 예방법(계명대의대 신경과 이현아 교수) 등 최신지견이 발표되어 회원들에게 유용한 정보의 장이 됐다. 경품 추첨을 끝으로 의협 제33차 종합학술대회 대구경북권역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마쳤으며, 의협 종합학술대회는 매 3년마다 의협 주관으로 개최해 오고 있다.





회원 및 가족 등반대회 대전 계룡산서 개최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건강증진을 위해 지난 5월 22일(일) 오전 9시 30분 대전 계룡산에서 대한의사산악회 등반대회를 겸하여 성황리에 개최됐다.



맑은 봄 날씨속에 진행된 2011년도 회원 및 가족 등반대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건강증진을 위해 지난 5월 22일(일) 오전 9시 30분 대전 계룡산 금수봉(534m)에서 대한의사산악회 등반대회를 겸하여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개최된 회원 및 가족 등반대회는 본회 이석균 회장을 비롯한, 정만진 대의원회 의장 등 회원 및 가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이석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좁은 진료실에서 벗어나 오늘 하루만큼은 등반을 통해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좋은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했으며, 정만진 대의원회 의장은 “회원 및 가족 등반대회를 통해 회원간 안부를 묻고 더불어 충전의 시간을 갖자.”고 했다.

등반코스는 2분류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A코스로 계룡산 수통탐방지원센터를 출발해 수통폭포 → 수통골 → 금수봉삼거리 → 금수봉 → 성북동삼거리 → 빈계산 → 능선길 하산 → 수통골 분소를 거쳐 식당으로 오는 코스와 B코스로 계룡산 수통탐방지원센터를 출발해 수통폭포 → 수통골 → 금수봉삼거리 → 금수봉 → 성북동삼거리에서 작은수통골로 하산하여 식당으로 오는 코스로 이뤄졌다.

등반을 마친 회원 및 가족은 대한의사산악회에서 마련한 식당에서 뒤풀이 행사를 가지며 등반의 피로를 풀었다.

이날 등반대회는 대한의사산악회에서 주최하여 본회 등반대회와 겸하여 개최되었으며, 포항과 경산에서 버스를 대절하여 참석하여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다지며 건강을 챙겼으며, 참석한 회원에게는 대한의사산악회에서 모자와 스카프를, 본회에서는 건어물을 선물로 증정했다.

경상북도 보건의료단체-적십자사 사회공헌협약 체결

재난시 의료지원 및 구호활동과 지역사회 봉사활동, 건전한 기부문화 운동 등을 실천할 것을 약속하는 사회공헌협약을 체결했다.



본회를 비롯한 경상북도 간호사회, 약사회와 경상북도적십자사는 재난시 의료지원 및 구호활동과 평상시 소외된 이웃을 위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함께 펼치며, 건전한 기부문화 운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과 인도주의 활동의 동반자가 되어 이웃사랑을 실천할 것을 약속하는 '경상북도 보건의료단체-적십자사 사회공헌협약'을 지난 6월 14일(화) 12시 30분, 경상북도적십자사에서 체결했다.

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본회 이석균 회장을 비롯한 고순희 간호사회장, 한형국 약사회장과 경북적십자사 신기욱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공헌 협약식을 체결하였으며, 협약서에는 △재난시 의료지원 및 구호활동 △취약계층 의료지원 및 봉사활동 △건전한 기부문화 운동 △기타 인도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 추진 등 4개항에 대해 체결하고 지역민들을 위한 인도주의 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참여와 나눔의 실천을 약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2011 희망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밝은

세상 프로그램(안구질환지원사업)' 전개를 위한 협약식도 체결했다.

안구질환지원사업은 어려운 이웃의 아픔을 함께 느끼며, 저소득층 도민에 대한 안구질환 치료를 위해 경북도내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세대원과 차상위 및 차차상위계층, 저소득자 세대원중 행정기관이나 적십자 봉사원, 협약병원 등에서 추천받아 심사를 거쳐 확정된 자에게 안과 검진과 백내장, 망막질환, 안성형, 익상편, 의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사업비 1억원으로 약 167명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펼칠 계획이며, 밝은세상 프로그램에 동참하기로 동의한 대구·경북지역 안과 의료기관과 의안업체 등이 참여하게 된다.

이에 앞서 본회와 대구·경북안과과개원의협의회(회장 배언희), 적십자사는 협약체결을 맺고 사업을 진행하여 저소득층 안구 질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의협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지난 4월 24일(일) 오전 9시,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의협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에서 회원부담 경감차원에서 '가회원(개원회원)' 기준으로 회비 25만원을 23만원으로 2만원 인하하기로 함에 따라 10억 원 가량의 수입이 줄고 2011년 예산은 3억 6640만원이 삭감된 351억 6760만원으로 수정 통과시켰다.

법령 및 정관 개정과 관련해서도 의협회장 등 임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소송을 해 패소했을 때 소송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아울러 소송심의특별위원회도 폐지하기로 했다. 의협 회장 선거방식 개정과 관련해서는 '대의원을 포함한 선거인단의 비밀투표'로 규정된 현행 정관의 법적 유효성에 대한 소송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선거 관련규정의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판단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논의를 중단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경만호 의협회장의 사퇴 권고안을 상정할 것인가를 놓고 표결까지 한 끝에 사퇴 권고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에 앞서 1토의안건 심의분과위원회에서도 5개 지역의사회에서 건의한 의협 회장 사퇴권고안을 심의한 끝에 19대 18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한 감사보고서 채택과 관련해서도 미흡했던 하반기 감사보고서에 대해서는 재감사를 해서 한 달 후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했으며, 총회 결의문 채택과 더불어 의협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총회장에 참석한 전국 의사총연합 등 많은 회원들은 시종일관 경만호 회장의 사퇴와 대의원들의 올바른 의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본회에서는 중앙대의원으로 이원기·변영우·정만진·이석균·김동욱·김재왕·김광만 대의원이 참석했다.

단식에 입했던 김관용 경북도지사 방문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과학벨트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수도권에 유리한 국제공항 접근

성을 비롯,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등 평가기준의 불공정성에 부당한 심정으로 단식함에 따라 본회 이석균 회장을 비롯한 변영우 고문, 장유석 재무이사, 김종영 공보이사, 박재영 사무처장이 지난 5월 14일(토) 오후 6시 도지사를 방문하여 위로의 뜻을 전달하며, 건강을 챙길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보건정책과(과장 김정일)를 방문하여 보건행정 발전에 전념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경상북도 부패방지협의회 개최

경상북도에서는 금년도 부패없는 사회분위기 조성 과 민관협력방안 협의를 위해 지난 4월 29일(금) 오전 11시 경북도청 제1회의실에서 '2011년도 경상북도 부패방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2011년 경상북도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계획 보고와 부패 Zero, Clean 경북 실현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협의 등에 대해 논의했다.

경상북도 부패방지협의회는 이삼걸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본회 이석균 회장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했다.



2011년도

회원정기신고 및 의사회비 납부 안내

매년 실시되는 회원정기신고와 2011년도 의사회비는 의사의 전문성 및 자율성을 확보하고 정책단체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이미지를 고양하는 한편 회원서비스를 강화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회원님께서 납부해 주시는 소중한 회비는 의권 신장과 더불어 본회의 효율적인 사업추진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쓰여지고 있으며, 의사의 종주단체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건강지킴이 역할 수행은 물론 단합된 회세와 전문성을 확보하여 정책단체로서의 역할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의사단체의 존재성을 되새겨 회비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 대한민국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본회 소속회원)

회원 변동 신고

- 회원기록부에 인적사항 누락 또는 변경사항을 정확히 수정 기재 후 날인
- 전산입력된 기록부가 없는 회원은 공란(백지)용지에 상세히 기록 날인
- 회원 개인 신상변동사항은 전산지 또는 웹방식 신고
 -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ma.org>) 접속 → 로그인 → 회원정보관리 → 상세회원정보 → 변경내용 수정

의협회비 면제 및 감면 대상

- 회비면제 회원
 - 만70세이상 회원(1941년 5월 1일 이전 출생자) : 단, 경상북도 의사회비는 '가회원' 250,000원, '나회원' 125,000원 납부
 - 질병, 신체장애, 해외연수 등의 사유로 회계연도중 12개월 이상 진료활동이 중단된 상태에 있는 회원
 - 공직 또는 봉직의사로서 정년퇴임 후 경제활동이 없는 회원
 - 보건의료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타 분야에 전업한 회원
 - 기타 사유로 생계가 극히 곤란함이 인정되어 면제를 요청하는 회원
 ※ 회비면제회원 신청 : 해당회원의 증빙자료 첨부 신청
- 회비 감면회원
 - 개원회원('가' 회원)중 '나' 회원회비 적용대상 : 471,000원 징수
 - 만65세이상 회원 : 1941년 5월 1일 ~ 1946년 4월 30일 주민등록표상 기준

회비내역

구 분	가회원		나회원	다회원	라회원	휴직회원	비 고
	개원회원	감면회원	근무회원	전공의회원	공보의회원		
대한의사협회비	300,000	221,000	221,000	125,000	96,000	125,000	연회비·구독료·연구소 회비·학술대회부담금
경북도의사회비	250,000	250,000	125,000	75,000	-	-	
계	550,000	471,000	346,000	200,000	96,000	125,000	

※ 입금계좌 : 농협 301-0012-0507-61 경북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 안내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 전자 문서교환방식(EDI), 전산매체 또는 서면 중 한가지의 방법을 선택하여 청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요양기관에서 청구S/W에 탑재된 EDI를 통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EDI는 KT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기존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심사평가원에서는 제3자 중계가 아닌 인터넷망을 이용한 '진료비청구포털'을 개발하고 2011년 6월 29일부터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 EDI 서비스는 KT와 심사평가원과의 양자논의를 통해 서비스 기간을 결정하기로 한 바, 현재

와 같은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며, 심평원의 진료비 청구포털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요양기관에서는 KT-EDI를 해지하셔야 EDI 비용이 부과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산재청구 요양기관은 '2011년 7월 1일 이후에 KT-EDI를 해지하시고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는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포털(biz.hira.or.kr) 홈페이지 및 콜센터(1644-2000 → 0번)로 신청

EDI 해지신청 및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 신청 안내

• EDI 청구기관인 경우

- EDI를 해지하고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 가입신청 후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DI해지신청



가입 신청



프로그램 다운로드

- TEL : 080-318-5306
- 홈페이지 : www.ktedi.com (EDI 미 해지 시 요금부과 될 수 있음)
-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및 FAX신청을 통하여 가입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www.hira.or.kr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 (배너) 신청 및 자료제출 전산청구
-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의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프로그램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전산매체 청구기관인 경우

- 사용하시는 청구 S/W에서 표준 SAM 파일을 생성할 수 있는지 청구 S/W업체에 문의하십시오.
- 위 사항이 가능한 경우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 가입신청 후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병·의원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안내

불법 S/W 단속은 그간 대기업 및 관공서 위주로 이뤄져왔으나, 근래 들어 단속 대상이 소규모의 병·의원에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한국마이크로소프트사(MS)가 특정 법률사무소를 통해 전국 각 지역 병·의원에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통보한 바 있음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S/W사용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이선스 보유가 필요한 S/W 안내

병·의원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대다수가 상용화되어 기업용(사업장) 제품은 유료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Windows OS

① 정품 레이블이 부착된 경우 OEM 제품입니다. 컴퓨터 구입 시 OEM 방식의 정품 운영체제가 함께 제공되는 제품을 구입 하였다면 아래의 샘플과 같은 정품인증 레이블이 컴퓨터 본체 왼쪽에 부착되어 있고 정품으로 인정 받습니다. 주로 브랜드PC(삼성, LG 등) 제조회사 제품을 구입했을 경우입니다.



〈정품 레이블 샘플〉

- ② 각 PC 마다 별도의 패키지 라이선스 제품 및 보유패지 제품을 보유하고 있고 이용하는 경우 정품입니다.
- ③ Window OS 계열에 대해 볼륨라이선스를 구매하고 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정품입니다.
- ④ 브랜드PC의 운영체제는 사업장에서도 Home 버전을 사용해도 무관합니다.

2. Office 프로그램

MS Office의 경우 라이선스 관련 인증서 또는 패키지 제품을 이용하고 있는 PC 수만큼 보유하고 있고 보유한 버전 또는 그 이하의 버전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면 정품으로 인증됩니다.

3. 한글 2010

기업용 제품이 별도로 있는 상용화된 제품으로 필요한 PC 대수만큼 라이선스 또는 패키지 제품을 보유해야 합니다.

4. V3 백신, 알약 등

백신의 경우도 상용화된 프로그램으로 기업용 제품이 별도로 있

습니다. 1년 단위 갱신 계약이 필요하며 필요한 PC 대수만큼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5. 알집

알집 또한 상용화된 프로그램으로 사업장인 병·의원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제품 라이선스를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무료제품 : 빵집 www.bkyang.com)

※ 참고사항

- 상위버전을 정품 S/W를 구매한 경우라도 상위버전과 하위버전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불법인 바, 주의 바랍니다.
- 그 외 포토샵 등 기존 불법 소프트웨어 등은 삭제한 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라이선스 보유가 필요없는 S/W

1. 오픈오피스란?

오픈오피스는 어디에서든, 어느 목적으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고급 오피스 프로그램입니다. 오픈오피스는 세계 공개 표준 포맷인 오픈다큐먼트를 기본 포맷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문서 교환에 적합하며 그 외에 여러 버전의 MS 오피스를 포함해 다양한 파일 포맷을 읽고 쓸 수 있습니다.

2. 오픈오피스 다운로드 방법

회원분들께서는 오픈오피스 “일반 사용자용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면 됩니다.

다운로드 주소 - 매뉴얼 다운로드 주소 -
<http://openoffice.or.kr/main/page.php?id=support>

3. 오픈오피스 사용법

오픈오피스 사용은 MS오피스와 유사한 기능이지만 사용자 인터페이스 명칭 등이 상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오픈오피스 한국어 커뮤니티에서 매뉴얼 다운로드 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적용관련 해설



201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주40시간제 적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시행됩니다. 이제 회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40시간제 적용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제 적용 주요 내용

1. 시행시기

2011. 7. 1 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적용확대

2. 휴가제도 개선·조정

-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생리휴가를 무급화
 - 현행 제도는 1월 만근시 1일의 월차휴가 부여,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 부여
- 연차휴가를 15~25일(2년당 1일 가산)로 조정하고, 1년미만 근속자에 대하여는 1월당 1일의 휴가를 부여
 - 현행 제도는 1년 만근시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계속근로 연수 1년당 1일을 가산하며, 20일 초과시 통상임금으로 갈음할 수 있음

3. 휴가일수 확대를 통한 실근로시간 단축

- 휴가사용촉진방안을 신설
 -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금전보상 의무를 면제
- 선택적 보상휴가제도의 도입근거를 마련
 - 노사합의로 연장근로에 대해 임금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4. 시간외근로 한도 및 할증률 조정(신설)

-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매주 16시간으로 확대, 40시간을 초과하는 최초 4시간분 할증률을 25%로 조정

5. 과제와 유의할 점

- 근로계약서 작성
 - 근로시간 및 급여산정의 기준을 주40시간제에 맞게 조정
- 취업규칙 개정
 - 법정휴가 부여기준을 변경, 휴가사용촉진 등 관련사항 개정
- 연차휴가 사용기간 설정 및 휴가사용촉진 제도 실행
 - 연차휴가 사용기간 설정 및 휴가사용촉진절차 규정을 통해 수당지급부담 해소방안 마련
- 월차 및 생리휴가 삭제 내지 변경
 - 현행 취업규칙 등에 유급월차 및 유급생리휴가가 폐지되지 않을 경우 주40시간제에서도 추가 부여하는 의무가 지속됨
- 시간급 통상임금 명시 및 최저임금 위반 유의
 - 근로계약 등에 시간급 통상임금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주40시간제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 상승의 오해 발생 우려
 -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 시간급 통상임금 확보

• 휴게시간 확대 및 약정휴일, 휴가 조정

- 실근로시간 관리를 위해 휴게시간 명시, 법정휴일(유급주휴일, 근로자의 날)외에 공휴일 등의 유급약정휴일을 부여할 것인지 또는 연차휴가로 대체할 것인지에 대한 명시가 필요함.
- 병원 운영시스템, 운영 환경개선(진료일 및 휴일 조정, 진료시간 조정 포함)
- 사회보험료 부담체계 개선
 -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의 근로자부담 체계 조정 필요
- 퇴직급여 제도 개선
 - 퇴직금, 퇴직연금, 개인퇴직계좌, 퇴직금중간정산절차 등 다양한 퇴직금제도 개선에 대한 신중한 고려.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 12. 1 부터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하였기에 퇴직급여제도 설정. 단, 향후 3년간은 50%지급
- 주40시간제 실행에 맞춰 근로계약 등 근로조건을 조정하지 않을 경우 임금지급 총액의 상승효과가 발생하므로, 병원운영시스템에 적합한 근로조건 조정을 서면으로 명시(2011. 7. 1 이전 완료)

주40시간제(개정근로기준법) 적용시 변경사항

구 분	주44시간	주40시간제
법정근로시간	주44시간	주40시간
연차휴가 및 휴가사용 촉진방안	월차휴가 : 월 만근시 1일 연차휴가 : 1년 만근 10일, 1년 근속시마다 1일 가산, 20일 초과시 금전지급 가능	월차휴가 : 폐지 연차휴가 : 15~25일(2년당 1일 가산)로 조정, 1년 미만 근속자는 1개월당 1일 휴가부여 휴가사용촉진방안 신설
선택적 보상 휴가제	규정없음	노사합의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제도 도입 가능
생리휴가	월 1일 유급으로 부여	무급휴가
연장근로시간 상한선 및 할증률	연장근로시간 1주 12시간 한도 연장근로 할증률 50%	3년간 한시적으로 1주 16시간 한도, 최초 4시간분 할증률 25%
탄력적 근로시간제	2주 단위 : 취업규칙, 1주 48시간 한도 1개월 단위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1일 12시간, 1주 56시간 한도	2주 단위 : 취업규칙, 1주 48시간 한도 단위기간 3개월로 확대(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일12시간, 주52시간 한도)
임금보전	-	법개정으로 인해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부칙에 명시
단체협약, 취업규칙 변경	-	기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갱신 노력의무 부칙에 명시

근로계약서(5인 미만)

(SAMPLE)

사용자 _____(이하 '갑' 이라 한다)

근로자 _____(이하 '을' 이라 한다)

제1조(근로계약) ① 계약의 기간은 20 . . . 부터 20 . . . 까지
로 한다.

② 전항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갱신하지 아
니한 때에는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2조(취업 직종 및 장소) '을' 의 담당직무는 _____,
취업 장소는 _____ 병원 또는 '갑' 이 명하는 장소로 한다.

제3조(근로시간 및 휴게) ① 시업시각 _____, 종업시각
_____ (토요일 _____)

② '갑' 은 '을' 에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
우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되 병원의 근
무특성상 분할부여 하거나 근무자들 사이에 시차를 두고 휴게
하게 할 수 있고, '갑' 은 병원 사정에 따라 전항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 할 수 있다.

제4조(휴일 및 휴가) ① '갑' 은 '을' 에 주 1회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며, '을' 과의 합의로 주휴일은 소정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을' 이 교대제 근무를 하는 경우 주 1회 24시간 연속하여 휴
무하게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을' 에게 유급 주 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한다.

제5조(임금 및 퇴직금) ① '을' 의 임금은 (시간/일/월/연봉)
급 _____ 원

② 상여금 없음(), 있음() _____ 원

③ 기타급여(제 수당 등): _____ 원, _____ 원, _____ 원

④ 임금지급일 매월: _____ 일

⑤ 임금지급 방법: '을' 의 예금통장 입금

⑥ 신규채용 후 만1년 이상 근로한 경우, 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
급한다.

제6조(기타) ① 본 계약서는 '을' 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본을
교부하여 준다.

② 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취업규칙 및 노동관
계법령에 따르기로 한다.

제7조(특약사항)

20

사용자(갑)	사업체명	업 종	의원
	소재지	대 표	
근로자(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근로계약서(5인 이상, 2011. 7. 1 이후)

(SAMPLE)

사용자 _____(이하 '갑' 이라 한다)

근로자 _____(이하 '을' 이라 한다)

제1조(근로계약) ① 계약의 기간은 20 . . . 부터 20 . . . 까지
로 한다.

② 전항의 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갱신하지 아
니한 때에는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2조(취업 직종 및 장소) '을' 의 담당직무는 _____,
취업 장소는 _____ 또는 '갑' 이 명하는 장소로 한다.

제3조(근로시간 및 휴게) ① 시업시각 _____, 종업시각
_____ (토요일 _____), 1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 주 40시
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② '갑' 은 '을' 에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
우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되 병원의 근
무특성상 분할부여 하거나 근무자들 사이에 시차를 두고 휴게
하게 할 수 있고, '갑' 은 병원 사정에 따라 전항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 할 수 있다.

제4조(휴일 및 휴가) ① '갑' 은 '을' 에 주1회 유급 주휴일
'을' 과의 합의로 주휴일은 소정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연
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한다.

② '을' 이 교대제 근무를 하는 경우 주 1회 24시간 연속하여 휴
무하게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을' 에게 유급 주 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한다.

제5조(임금 및 퇴직금) ① '을' 의 임금은 (시간/일/월/연봉)
급 _____ 원

② 상여금 없음(), 있음() _____ 원

③ 기타급여(제 수당 등): _____ 원, _____ 원, _____ 원

④ 임금지급일 매월: _____ 일

⑤ 임금지급 방법: '을' 의 예금통장 입금

제6조(연장·야간·휴일근로) ① '을' 은 '갑' 과 병원의 특
성상 제3조의 근로시간과는 별도의 연장·야간·휴일근로 및
야간당직, 휴일당직 근무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한다.

② 진료시간, 수술일정에 따라 발생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에 대하여 추가근로수당을 지급한다.

제7조(기타) ① 본 계약서는 '을' 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본을
교부하여 준다.

② 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취업규칙 및 노동관
계법령에 따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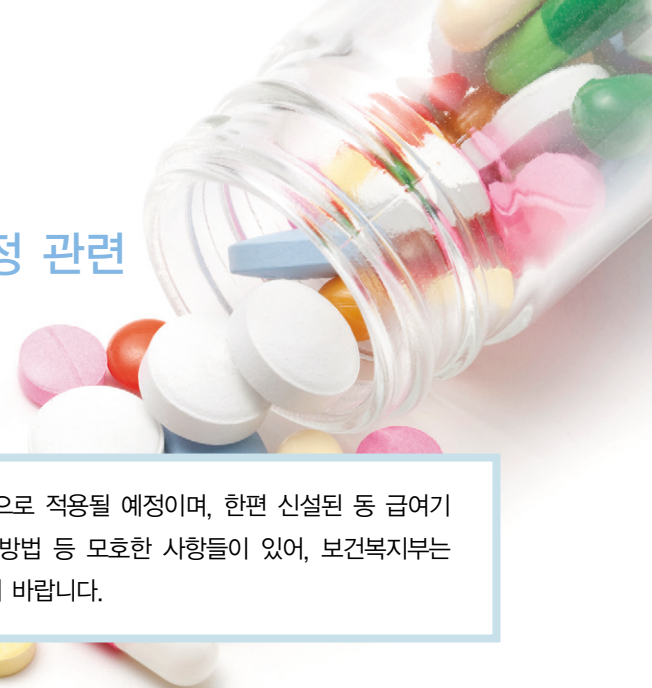
제8조(특약사항)

20

사용자(갑)	사업체명	업 종	의원
	소재지	대 표	
근로자(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양식 게재

당뇨병용제 신설 급여기준 개정 관련 질의응답(Q&A)



보건복지부는 당뇨병용제 일반원칙을 신설하여 7월 1일부터 급여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한편 신설된 동 급여기준과 관련하여 기존에 당뇨병약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에 대한 적용방법 등 모호한 사항들이 있어, 보건복지부는 「당뇨병용제 급여기준 Q&A」를 작성한 바, 이에 진료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이미 당뇨 약제를 투여 받고 있던 기존 환자의 적용 방법

- A**
- 당뇨병용제 일반원칙의 단독요법은 2011. 7. 1일 이후 처음 당뇨병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시작하는 환자에게 적용됨
 - 기존환자(2011. 7. 1일 이전 당뇨치료제를 투여하던 환자는 해당 요법을 지속시 급여 인정하고, 약제 조합의 인정 여부나 비용부담은 일반원칙에 따라 2011. 7. 1일부터 적용해야 함.

예시1) 2011. 7. 1일 이전 단독요법으로 급여로 인정되던 약제(Metformin, Sulfonylurea, Meglitinide, α -glucosidase inhibitor)를 투여하던 환자가 해당 요법 지속시 급여 인정함

예시2) 2011. 7. 1일 이전 2제요법(인정가능 2제요법)을 투여하던 환자가 해당 요법 지속시 급여 인정하나, 약제 조합의 인정 여부나 비용부담은 2011. 7. 1일부터 적용됨(동 고시의 불인정요법은 인정하지 않음)

예시3) 2011. 7. 1일 이전 당뇨병용제를 투여하던 환자가 기존에 복용하던 약제를 변경하거나 2제 또는 3제요법으로 변경시에는 동 고시의 단계별 투여대상에 적용됨

예시4) 2011. 7. 1일 이전 당뇨병용제를 복용하던 환자가 타기관을 방문할 경우 기존 복용약을 처방시 상기 예시에 따라 급여 인정하며, 처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 고시의 단계별 투여대상에 적용됨 (특정내역란에 타병원 처방환자임을 명시)

Q 설포닐우레아 약제 투여나 신속한 약제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 '투여소건을 첨부' 하도록 한 규정의 의미는 무엇인지?

- A** 청구명세서 상 특정내역란에 소건을 기재

Q 약물 요법 시작 또는 변경시 검사 결과 수치(HbA1C, 공복혈당 등)를 매단계에서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

- A** 청구시 검사 결과 수치(HbA1C, 공복혈당 등)를 일일이 기재할 필요는 없고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면 됨

Q Metformin 투여 금기 환자에는 어떤 환자가 해당되는지 여부

- A** 신장질환이나 신기능부전(크레아티닌치가 남자는 1.5mg/dL 이상, 여자는 1.4mg/dL 이상인, 또는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비정상인 환자) 등이 해당됨. (※ Metformin 식약청 허가사항의 사용상의 주의 사항 참고 할 것)

Q Metformin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 A** 소화기계 부작용(식욕감퇴, 오심, 구토, 설사) 등

Q 동 고시에서 '임의혈장혈당'의 의미는 무엇인지 여부

- A** 공복 여부에 상관없이 시행한 혈장혈당 검사 결과를 의미함



Q 단독요법에서 2제요법으로 변경시 공복혈당 및 식후혈당의 의미는 무엇인지?

A 혈장혈당 뿐 아니라 반정량 검사 결과도 인정한다는 의미임

Q 2제요법시 Meglitide계 약제(Repaglinide, Nateglinide, Mitiglinide)의 허가사항이 성분에 따라 다른 경우 적용방법

A Meglitide계 약제 모두 동일하게 병용요법에 적용됨

Q 고시문구 중 '2제요법 투여대상으로 2제요법 인정 가능 성분 중 1종만 투여한 경우도 인정함'은 무슨 의미인지?

A 단독요법으로 혈당이 조절 안되거나 초기 HbA1C가 7.5이상이라 2제요법 대상 환자에 해당되나, 2제를 투여하지 않고 인정가능 2제요법 중 1종만 투여해도 급여 인정 한다는 의미임

Q 고시문구 중 'Rosiglitazone 및 DPP-IV inhibitor계 약제는 Insulin 주사제와 병용을 인정하지 아니함'은 무슨 의미인지?

A Rosiglitazone(품명 : 아반디아정 등)과 DPP-IV inhibitor계 약제 중 vildagliptin(품명: 가브스정)은 insulin과의 병용에 허가가 없고, sitagliptin(품명 : 자누비아정)는 insulin과의 병용에 허가 있으므로 Rosiglitazone(품명 : 아반디아정 등)과 가브스정은 insulin과 병용시 불인정, 자누비아정은 insulin과 병용시 전액본인부담임

Q 인슐린 단독요법 중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병용 투여에도'는 무슨 의미인지?

A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 2제요법 또는 3제요법에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 인슐린 단독요법을 인정 한다는 의미임

Q 고시문구 중 'Metformin 성분이 포함된 복합제에 Metformin 단일제 추가 투여시 Metformin

서방형 경구제는 제외'는 무슨 의미인지?

A Metformin 증량하기 위해 Metformin 성분이 포함된 복합제에 Metformin 단일제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Metformin 단일제 중 속방정 투여만 인정함. 이때 용량은 복합제내 Metformin 함량을 포함하여 1일 최대 2500mg 까지 인정한다는 의미임

Q 2011. 7. 1일부터 서방형 메트포민제제 약제상한차액 등 청구방법

A • 2011. 7. 1일부터 고시한 서방형 메트포민제제의 상한금액* 보다 저가로 구입한 경우는 약제상한차액을 청구 할 수 있음

*상한금액 : 500mg정 94원, 750mg정 118원, 1,000mg정 141원

예시) [서방형 메트포민제제 500mg정 상한금액(94원) - 영양기관의 구입단가] × 100분의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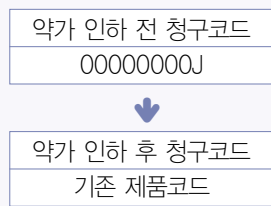
• 동일 명세서에 시행일 전·후를 청구시 약제 상한금액이 달라지므로 줄번호를 구분하여 작성하고 '변경일차'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Q 2011. 7. 1일 고시한 서방형 메트포민제제 상한금액(500mg정 94원, 750mg정 118원, 1,000mg정 141원) 이하로 인하된 경우 청구방법

A 서방형 메트포민제제 상한금액이 500mg정 94원, 750mg정 118원, 1,000mg정 141원 이하로 인하된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 제품코드로 청구하여야 함

예시) 1. 2011. 7. 1일 이전 상한금액 인하시 글루코다운오알서 방정500밀리그램(메트포르민염산염)는 기존 제품코드 655600080로 청구

2. 2011. 7. 1일 이후 상한금액 인하시



미용목적 성형수술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관련 안내



기획재정부가 과세기반 확충이라는 명목 하에 2010년 8월 23일 “2010년 세재개편안” 발표를 통해 도입을 추진해왔던 미용목적성형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전환은 그간 조세형평의 문제 등 각계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0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미용목적 성형수술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관련 내용 및 행정 조치사항에 대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1. 7. 1부터 새로 부가가치세 (10%)가 과세되는 의료보건의용역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 ① 쌍꺼풀수술 ② 코성형수술 ③ 유방확대·축소술 ④ 지방흡입술
 - ⑤ 주름살제거술 진료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호]
- 보톡스, 필러 시술 등 주름살을 완화하는 약물투여 시술이 상기 주름살제거술에 해당되는 경우 역시 면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성형외과 전문과목에 국한된 제도가 아니며, 동 5가지 의료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 2011. 7. 1 부터 상기 5가지 의료용역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과세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서 기존의 면세 사업자 등록증을 과세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 발급받아야 합니다.
- 기존의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과세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미등록가산세, 등록 전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과세사업자 전환 전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그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6항].
- 상기 5가지 의료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의료기관의 경우 기존의 면세사업자 등록을 기존대로 유지하면 됩니다.

기 타

- 세부사항은 해당 의료기관 담당 세무사 또는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1번 세법상담-2번 부가가치세)」,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Notice 공지사항



본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문 및 각종 공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요약 안내합니다.

모든 공문 및 안내사항은 **본회 홈페이지**(<http://www.igbma.or.kr>)의 **의사회소식** → **온라인 공문**에 게재되어 있으며, 홈페이지에 가입하지 않은 회원은 가입하시어 유용한 정보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등록제도 변경 안내

구분	내용
장애등급심사 절차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 일선 병·의원의 의사 1인에 의한 장애인단 · 판정만으로 시군구(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 • 변경 : 일선 병·의원의 의사는 장애인단만 하고 장애심사전문기관에서 일선 병·의원 의사의 진단 및 소견서를 토대로 장애등급심사 후 시군구(읍면동)에서 장애인등록
장애등급심사 기준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을 고려하는 판정 기준 마련 • 뇌병변장애판정기준을 보완
이의신청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등급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준, 절차 등 안내 의무화 • 복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장애등급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편의제공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등록장애인의 경우 등록관련 제출서류 간소화 • 거동불편 장애인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방문상담, 심사서류 직접확보) • 의료기관 진단을 위한 차량지원 및 직접동행서비스 시행

- 장애등급심사 대상자 확대 : 신규 등록 및 재판정 대상자, 장애등급조정신청하는 장애인은 모두 장애등급심사완료 후 장애인 등록하도록 변경('2011. 4. 1 부터 적용)
- 장애인단서 서식 변경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별지 3호 서식 "장애인단서"의 장애등급 기재란 삭제(2011. 2. 1 공포. 단, 변경된 장애인단서 서식은 '2011. 4. 1 부터 적용)
 - ※ 병·의원에서는 기존과 달리 장애등급을 기재하지 않음
- 뇌병변장애판정기준 개정 : 수정바델지수 점수 상향조정 및 팔, 다리 부분의 마비, 관절구축 규정을 추가
 - ※ 수정바델지수의 평가가 불필요한 경우 진단서에 장애 상태 명기
 - ※ 뇌병변 장애평가지 수정바델지수 활용지침에 따라 평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 요청

- 국세청은 2011년 4월 4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여 미부착시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됨을 안내
- 2011년 4월 5일부터 세무공무원이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및 스티커」을 교부하기 전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미부착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나 현금영수증 가맹점 표시 게시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부착

2011년도 회원 연수교육 철저 이수 안내

- 의료법 제30조 및 대한의사협회 정관에 의거 의료인은 매년 연수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회원 연수교육에 대한 사항과 연수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함.
- 교육회기 및 이수기간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 의무 이수평점 : 매년 12평점 이상 이수
- KMA 교육센터(<http://edu.kma.org>)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연수교육 이수내역확인] 란에서 확인
- 미이수자 행정처분 [의료법 제68조 및 제92조]
 - ① 1차 미이수시 : 경고/70만원의 과태료 처분
 - ② 1차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 2차 위반시 : 자격정지 7일

'인터넷 소셜커머스 사이트' 관련 안내

- 복지부에서는 특정 사이트(소셜커머스)상의 회원을 대상으로 할인된 의료 쿠폰·시술권 등 공동판매를 통해 특정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는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의료법 제27조 제3항(소개알선유인) 및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에 위배된다고 유권해석 함에 따라 회원들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의료장비 일제조사 안내

- 복지부는 '의료장비의 품질확보 및 적정사용을 통한 국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료법 등에 의거 관리되고 있는 의료장비 등에 대하여 식별코드(표준코드)를 생성하여 각 개별 장비에 바코드를 부착하여 관리할 예정임에 따라 의료장비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
- 금년도 우선 대상에 해당하는 장비를 보유한 의료기관에서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셔서 보유한 의료장비에 대한 신고내역 중 미비한 사항을 보완
- 금번 일제조사에서는 의료장비(CT, MRI, PET)의 비급여 사용실태도 함께 조사

구분	내용
071	X-Ray 촬영장치(아날로그)
072	X-Ray 촬영·투시장치(아날로그)
073	혈관조영장치(Single)
074	혈관조영장치(Bi-plane)
075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
076	C-Arm형 장치
077-01	단층촬영장치(Tomography)
077-02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
079	치과용방사선장치
080	치과방사선파노라마장치
082	Scan용 Gamma Camera
083	Spect용 Gamma Camera
087	CT
088	MRI 장비
093	골밀도검사기
096	양전자단층촬영기(PET, PET-CT)
216	Cone Beam CT
048	초음파영상진단기
049	심장초음파영상진단기
164	체외충격파쇄석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련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서식 변경

- 복지부는 2010년부터 의료기관의 의학적 평가와 지체체의 활동 능력 평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급자의 근로능력을 판정하는 「근로능력판정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중인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령개정(2011. 4. 15)으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서식이 변경됨을 안내
- 주요 변경사항 : 진단대상자 정보 상세화, 의료기관 직인 확인, 진단서 발급시 유의사항 안내(진단 대상자 및 평가 내용 투명테이프 처리, 필요시 봉합부분에 의료기관 간인), 장애등급 기재 항목 삭제

의원급 의료기관 절세 전략 책자 송부

- 의협에서는 그동안 세무대책위원회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겪고 있는 세무관련 주요 현안들에 대한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외부 전문가 연구용역 등을 통해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절세 전략」 책자를 발간하여 배부하였음
- 「의원급 의료기관 절세 전략」은 개원 준비, 의료기관 운영, 세무신고 과정상의 절세전략과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수입금액, 경비 등을 관리하여 세무조사 시 흔히 지적되는 사항 등에 대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각종 안내사항 등을 담고 있음



당뇨환자 소모성재료 요양비 지급 관련 안내

제1형 당뇨병환자의 건강증진 및 의료비 부담경감을 위해, 2011년 7월 1일부터 혈당검사시 사용하는 소모성재료(검사지)의 구입비용을 요양비로 지원함에 환자등록 및 요양비 지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안내

-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혈당검사지) 요양비 지급 주요내용
- 가. 제1형 당뇨병환자 :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에 명시된 기준에 해당한다고 진단한 사람
- 나. 등록신청서 및 처방전 발급 : 내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 다. 환자등록 : 2011년 6월 15일(수)부터 사전등록 실시. 다만 제도 시행이 7월 1일 부터인 점 감안하여 사전등록한 환자 등록일도 7월 1일로 함.
- 라. 1일 최대 처방일수 : 90일
- 마. 요양기관이 처방전에 확인할 사항 : 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수진자조회하여 1형 당뇨병환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등록일 8자리로 표시) 확인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사무실 이전 안내

-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사무국이 2011. 5. 30(월)자로 의협회관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기에 안내드립니다.
- 주소 : 대한의사협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1동 302-75번지)내 대외사업국(6층)
 - T (02)793-4100, F (02)794-8351, www.admedical.org

분회 및 병원소식

포항시의사회

제5회 친선골프대회 개최



포항시의사회(회장 황석순)는 지난 6월 19일(일) 송라제니스CC에서 포항시의사회 친선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골프대회는 황석순 회장을 비롯한 회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메달리스트에는 정창영 회원, 신페리오 우승은 신영호 회원, 준우승은 하종곤 회원이, 룡기스트에는 이우석 회원, 니어리스트는 송재경 회원이, 행운상에는 김익 회원이 차지하는 등 제5회 친선골프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경주시의사회

제3차 확대이사회 개최



경주시의사회(회장 이봉구)는 지난 5월 19일(목) 오후 7시, 2011년도 제3차 확

대이사회가 포항물회식당에서 있었다. 이날 이사회에서 이봉구 회장은 최근 의료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전반적으로 침체된 분위기에서 더욱 단합하자는 인사말이 있었다.

이어 이홍우 기획이사로부터 간략한 회무보고가 있었으며, 제33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행사와 친선골프대회 개최에 대한 토의와 더불어 IMS 시술, 선택의원제 등의 의료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안동시의사회

지역 취약계층 치료비 지원



안동시의사회(회장 김광인)는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5월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동지사 회의실에서 치료비 전달식을 갖고 림프종질환을 앓고 있는 관내 취약계층 학생에게 2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안동시의사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동지사가 공동으로 추진한 것으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공단의 참모습과 지역민의 건강을 항상 가까운 곳에서 보살피고

있는 지역 의사회가 안동 지역 주민들과 어려움을 항상 같이 나누고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환자가족들을 직접 도와주기 위하여 2011년 초부터 사업을 준비하여 금번 결실을 맺게 됐다.

제2차 이사회 및 월례회 개최



지난 4월 14일(목) 오후 7시, 부속한정식당에서 안동시의사회 제2차 이사회와 4월 28일(목) 오후 7시, 금강산가든식당에서 월례회를 개최했다. 월례회에서는 제33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행사 참석방안과 더불어 최근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제15회 친선골프대회 개최



지난 6월 12일(일) 안동떼제베이스트클럽에서 최종주·정창근·최유근 원로 회원과 각 종합병원장, 회원 등 35명

이 참석한 가운데 안동시의사회 제15회 친선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골프대회에서 우승은 문상웅 회원(제일외과의원)이 차지했으며, 메달리스트는 허진 회원(안동병원)이 차지했다.

구미시의사회

보건소와의 간담회 개최

구미시의사회(회장 류성훈)는 지난 4월 5일(화) 오후 1시, 금오산맥에서 구미보건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2011년 국가 결핵관리 신규사업 및 아토피질환 검진실시 사업과 위탁 예방접종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견된 환자 접촉자에 대한 결핵검진을 실시, 잠복결핵 감염인과 추가 결핵환자를 발견·치료하여 발병예방 등 전파를 조기에 차단하고, 천식 및 아토피 피부염 환자 선별 조기진단을 통한 적절한 치료관리 및 악화 방지에 관한 안내 등 의료기관 각종 준수사항 지도 관련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또한 4월 29일(금) 오후 7시 30분, 대해일식에서 구미시·선산보건소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고문 및 병원장 초청 간담회

지난 4월 26일(화) 오후 7시 30분, 대해일식에서 박재호·성기태·김옥배·김종국·장익현·김동욱·이경수 고문과 순천향대구미병원 오천환 병원장, 구미차병원 정재진 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의료현안 논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불법마약류 퇴치 및 약물 오남용 캠페인

불법마약류 퇴치 및 약물 오남용 방지 캠페인을 지난 6월 16일(목) 오후 3시 구미역 광장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보



건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캠페인을 펼쳤다. 홍보물과 부채, 볼펜 등을 나눠주고 마약퇴치 서명운동으로 마약의 유해성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경각심을 고취 시켰고 시민들이 알지 못했던 불법 마약류의 폐해 및 약물 오남용이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가를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제17회 골프대회 개최



지난 6월 19일(일) 선산CC에서 제17회 구미시의사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골프대회에서 메달리스트는 김철기 회원, 우승은 홍순걸 회원, 준우승은 황종현 회원, 3위 장의현 회원, 롱기스트 박광현 회원, 니어 황인수 회원, 대파상 김학근 회원, 잉고 정연호 회원, 최다타 서영배 회원, 버디 김병용 회원, 다파 박래경 회원, 다보기 김경제 회원, 더블 신대근 회원, 트리플 류성훈 회원이 차지하는 등 친목을 다졌다.

영천시의사회

2011년도 골프대회 개최

영천시의사회(회장 이동길)는 지난 6월 12일(일) 경산인터볼고CC에서 이동길



회장을 비롯한 많은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영천시의사회 골프대회를 개최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했다.

경산시의사회

이웃사랑 물품 전달



경산시의사회(회장 박일영)는 지난 5월 24일(화) 경산시드림스타트에 이웃사랑 물품으로 기저귀와 분유, 구충제, 영양제, 학용품 등을 전달했다.

이날 물품전달식에는 이석균 경북의사회장과 경산시의사회 김종영 부회장, 이정기 감사가 참석했다.

울진군 의사회

경북도민체전 지원



울진군의사회(회장 이종규)는 지난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울진에서 개최된 경북도민체전에서 의사회 전체 회원들

이 의료기관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도 민체전에 참가한 선수 및 도민들을 위 해 진료를 하고 무사히 체육대회가 마 칠수 있도록 협조했다.

후포-평해지역 반상회 개최

지난 6월 21일(화) 오후 7시, 후포-평 해지역 의사회 반상회가 개최됐다. 이날 반상회에서는 최근 의료현안과 더불어 약사회와의 쟁점사항에 관한 의견들에 대해 논의를 하였으며, 지난 도민체전에서 보여준 의사회의 협조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몽골 해외 의료봉사활동 예정

몽골 해외 의료봉사가 오는 8월 3일부터 7일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울진군의 적극적인 협조와 더불어 심평원대구지 원에서도 2명이 동참하여 민관 의료봉 사 팀이 처음으로 결성되어 의료봉사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포항성모병원

어린이날 맞아 어린 환아들에게 웃음과 희망 전해



포항성모병원(의무원장 김용필)은 어 린이 날을 맞아 지난 5월 4일(수) 소 아병동과 외래에서 다양한 행사를 진 행했다.

이날 행사는 어린이날에 나들이를 가 지 못하고 병상에서 투병중인 어린 소 아환우들과 보호자들에게 즐거움과 희 망을 주고 빠른 쾌유를 기원하는 의미 로 진행됐으며, 간호사들이 각 병동과

외래에 찾아가 소아환우들에게 페이스 페인팅을 해주고, 미리 준비한 선물과 풍선을 나눠주며 사진촬영을 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가졌다.

포항세명기독병원

울릉도서 무료 의료봉사활동 성료



포항세명기독병원(원장 한동선)은 지난 6월 18일(토) 울릉도 현지에서 의료봉 사활동을 펼쳤다.

울릉 한마음회관에서 진행된 무료 의 료봉사 활동을 통해 울릉도 주민 250 여명이 진료를 받았다. 이날 한동선 원 장을 비롯한 전문의 6명과 간호사 등 총 24명의 의료진을 울릉도로 파견해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세심하게 살폈으 며, 특히 병원 측은 울릉주민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심장초음파검사 장비와 체외충격파치료 장비를 이용한 검사· 치료를 제공하고 마취통증의학과 전문 의가 참여해 통증치료까지 실시해 호 응을 얻었다.

무료 의료봉사활동은 대아가족과 공동 기획하여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으며, 경북일보와 세명기독병원이 주관하고 대아고속해운과 울릉리조트 대아호텔 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계명대학교 경주동산병원

다문화가족 초청잔치 개최

경주동산병원(원장 손은익)은 지난 5월 14일(토) 오전 11시, 2011년 가정의 달 을 맞아 '베트남대사와 함께하는 다문



화가족 초청잔치'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손은익 병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본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초청손님으로는 Tran Trong Toan 베 트남 대사, 경북 자문대사, 경주시장, 한베트남협회장, 롯데시네마 대표, 경 주제일교회 목사가 참석하여 이번 행 사를 축하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경주 동산병원 다문화-국제진료센터 개소와 함께 매주 토요일 오전을 다문화가족 특별진료의 날로 정하여 앞으로 경주 지역의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의 건강 도우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금연건물 지정 선포식 열어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원장 이경섭)은 지난 5월 24일(화) 개원 20주년을 맞 아 교직원 및 환자, 보호자들의 건강증 진과 쾌적한 병원환경 조성을 위해 병 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선 포식을 열었다.

이번 선포식은 범국민적 금연운동에 적극 동참하면서 금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동

국대학교 경주병원은 병원 내 모든 건물과 그 반경 10m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경섭 병원장은 “맑고 깨끗한 건물 및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병원(Smoke-Free Hospital)을 조성해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연 건물을 지정하게 됐다.”며 금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은 병원 내 금연 홍보물 게재 및 지속적인 홍보 및 관리, 병동 입원생활 안내 시 금연 설명 강화, 공공장소나 업무구역 재떨이 철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안동병원

경북서북부노인보호기관과 '노인학대 예방' 협약



안동병원(원장 김용주)과 경북 서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정희)이 노인학대예방과 학대노인 보호를 위해 협력했다.

지난 6월 15일 세계 노인학대인식의 날을 맞아 양기관은 안동병원 컨퍼런스 센터에서 협약식을 개최하고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노인학대사례와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 대한 정보공유와 보호 조치 △학대받는 노인과 가정에 대한 정서적·경제적·의료적·교육적 지원 △노인복지증진 사업을 함께 하기로 했다.

강보영 이사장, 제5회 한미중소병원상 수상

강보영 안동병원 이사장이 지난 6월 22일(수)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제5회 한미중소병원상 시상식 및 제21차 대한중소병원협회 학술대회에 참석해 한미중소병원상 봉사상을 수상했다.

강보영 이사장은 주민건강 향상과 지역보건의료발전에 기여, 그리고 중소병원 경영환경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했다. 한미중소병원상은 지역 주민건강 향상 및 보건의료 발전과 중소병원 경영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한 병원장(이사장) 등 '의료인'을 발굴하여 그 공적을 치하함으로써 참된 병원인의 상(像)을 널리 알리고자 제정됐다.

안동성소병원

'5월 사랑의 달' 맞아 사랑나눔 행사 열어



안동성소병원(원장 박승국)은 개원 102주년을 맞아 지난 5월 한달간을 병원 자체적으로 '사랑의 달'로 정하고 이웃사랑 행사를 열었다.

지난 5월 18일(수) 오전 9시부터 병원 본관 앞마당에서 안동시보건소와 대구 경북적십자혈액원과 공동으로 '제3회 사랑나눔 헌혈행사'를 열어 성소병원 임직원, 안동시민, 병원 자매단체 및 봉사단체 회원 등 170여 명이 사랑의 헌혈에 동참했으며, 오전 11시 30분에는 신관 9층 회의실에서 안동시내 10개 고교 11명의 학생들에게 사랑의 급식장학금 500만원을 전달하는 등 지역민들과 사랑을 함께 나누는 풍성한 행사를 마련했다.

시립합창단 초청, 환우 위한 음악회 열어



안동성소병원은 안동시립합창단을 초청해 환우를 위한 음악회를 열었다. 이번 음악회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안동시립합창단을 초청해 갖는 행사로 4월 26일(화) 오후 7시부터 열렸다. 한편 4월 29일(금) 오전 11시부터 남성중창단 소울과 바이올리스트 김세림씨가 출연하여 '사랑나눔 정기 음악회'를 열었으며, 앞으로도 환우들을 위한 '사랑나눔 음악회'를 정기적으로 가질 예정이다.

백의 천사들의 사랑나눔 바자회 열어



제40회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아 '이웃 돕기 사랑나눔 바자회'를 개최해 수익금 전액을 어려운 이웃들의 백내장 수술비 지원과 사랑의 연탄 나누기 운동, 사랑의 쌀배달 사업 등에 지원했다. 안동성소병원 간호직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모임인 솔트회(SALT)는 지난 5월 12일(목) 오전 9시부터 신관 5층 주차장에서 의류와 재활용품, 생필품, 건어물, 각종 먹거리 등으로 바자회를 열고 수익 예상금 약 6백여 만원 전액을 이웃돕기에 사용했다.

비전 선포식 및 홍보대사위촉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원장 오천환)은 병원의 설립이념인 '인간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병원으로서 '경북 중서부지역 최고의 거점병원'으로 발돋움 한다는 취지로 지난 5월 3일(화) 오후 5시, 제2의 도약을 다짐하는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

이날 비전선포식에서 '경북 중서부권 최고의 환자중심 열린 거점병원'이라는 비전과 함께 비전달성을 위한 핵심가치를 순천향의 이니셜 'SCH'와 알파벳 'ABC'에 담았으며 △인간사랑실천 △고품격의의료서비스 제공 △미래를 여는 경영혁신 △교육연구 선도하는 병원이 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함과 더불어 지역 사회단체, 정치계 등 다양한 분야 대표자 32명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친절마인드 교육 실시



지난 5월 16일부터 일주일간 전 직원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나 스스로 긍정적인 마인드와 외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업무태도를 확립하여 고객이 만족하는 의

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만 바뀌어도 인생이 달라진다'를 주제로 열렸다. 이 같은 서비스 마인드교육은 진실한 마음으로 환자분들에게 정성을 다하고자 다짐하는 기회가 되고 있으며 나아가 고객 감동서비스로 이어지고 있다.

입사 100일 맞은 간호사 위한 축제 열어



지난 6월 15일(수) 입사 100일을 맞은 신규 간호사(프리셉티)와 신규교육 전담간호사(프리셉티)를 위한 '백일축제'를 마련했다.

'백일이 고비'라는 병원 현장에서 성공적인 적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신규 간호사 20명을 축하하고 각 병동의 신규교육 전담간호사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내는 축제의 장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열렸다.

백일축제는 이찬욱 신규간호사(혈관조영실)의 '백일 체험기'를 비롯 병동 가족들이 보내는 러브레터, 수간호사가 전하는 으랏차차 메시지를, 다양한 게임을 통한 마음나누기, 케이크컷팅 및 백일상 나눠먹기 등으로 진행됐다.

차의과학대학교부속 구미차병원

환경방사능 안정정복 시민 건강강좌 열어

구미차병원(원장 조수호)은 지난 4월 27일(수) 병원강당에서 지역민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 건강강좌를 열었다. 이번 특강은 지역민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에 대한

불안 심리를 해소시키기 위해 알기 쉬운 방사능과 방사능 요오드(131)와 다소 관련이 있으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갑상선질환으로 구성되어 진행됐다.

이날 강의는 산업의학과 이상원 교수의 '환경방사능의 건강 영향'과 내분비내과 이지은 교수의 '갑상선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강의와 질문으로 진행됐다.

환자안전주간 행사 가져



지난 6월 2일(목) 병원강당에서 교직원 을 대상으로 고품격 의료서비스를 위한 제1회 환자안전주간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소화기내과 정재진 교수의 '일상 업무 중 환자 안전'에 대한 특강으로 시작으로 진료지원 10개부서가 일상화 된 업무 가운데 환자 중심에서 개선되어야 할 업무를 발굴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근접오류 개선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행사의 절정을 이뤘다.

이어 환자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안전한 의료 환경 제공을 주제로 한 포스터, 표어, 사행시 공모에 우수한 작품과 경진대회에서 탁월한 소재를 발표한 부서를 시상하는 등 성황리에 행사가 개최됐다.

지역 주민 대상 '사랑의 무료검진'

야외 활동이 잦은 계절에 즈음해 지난 6월 20일~22일까지 지역 독거어르신 등 지역민 1000여명을 병원으로 초청



해 1층 로비에서 뼈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골다공증 무료검진을 실시했다. 또한 오는 6월 29일~30일까지 병원 7층 강당에서 뇌혈관질환과 심혈관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혈관 상태를 확인

하는 죽상동맥초음파검사와 콜레스테롤검사를 무료로 실시했다.

마야병원

알콜치료센터 희망의 징검다리 캠프 열어

영천 마야병원(원장 김창수)은 알코올 전문치료센터는 알코올중독자들을 돕기 위해 지난 6월 10일, 11일 이틀간 180여 명을 대상으로 희망의 징검다리 캠프-행복한 회복을 개최했다. 이

캠프는 알코올중독에서 회복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천방법에 대한 강의와 알코올중독을 극복한 사람의 경험담, 회복을 실천해가고 있는 가족의 입장도 들어보고 자신의 이야기도 함께 토론해보는 시간을 갖는 행사다. 매년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이 프로그램의 주제는 행복한 회복으로 정해졌으며, 제6차 희망의 징검다리 캠프는 특강과 경험담 발표, 부부탐구, 집단토론, 삶에 대한 명상, 집단 중심극인 소시오드라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됐다.

개원을 축하합니다 (2011년 4월 ~ 6월)



포항시

곽 영 균 _ 두호우리연합의원
(791-804) 포항시 북구 두호동 1052-3
T. (054)242-8855 / F. 242-9191

배 준 성 _ 우리논안과의원
(790-828) 포항시 남구 상도동 609-4
T. (054)278-1036 / F. 278-1038

강 호 석 _ 강호석소아청소년과의원
(791-852) 포항시 북구 장성동 1575-18 모던빌딩2층
T. (054)248-2468 / F. 244-6868

경주시

의료법인승암의료재단남산요양병원
(780-943) 경주시 성건동 340-4
T. (054)773-8500 / F. 773-8506

김천시

정 현 철 _ 황금의원
(740-070) 김천시 황금동 18-9
T. (054)434-8834 / F. 431-3375

안동시

이정훈 · 허재훈 _ 굿모닝연합의원
(760-310) 안동시 옥동 787-10
T. (054)842-7582-3 / F. 842-7585

경산시

김 흥 구 _ 행복한연합의원
(712-110) 경산시 정평동 130-19
T. (053)812-2236 / F. 812-2237

박 가 현 _ 서울이비인후과의원
(712-902)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1
T. (053)852-4411 / F. 852-4417

영덕군

권 순 범 _ 한빛연합의원
(766-821) 영덕군 강구면 강구리 529
T. (054)733-2352 / F. 733-2351

청도군

박 용 준 _ 마디연합정형외과의원
(714-802)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152-21
T. (054)373-9263 / F. 373-9265

고령군

박 용 욱 _ 경대연합안과의원
(717-804) 고령군 고령읍 현문리 231-1 제일M&D빌딩2층
T. (054)955-0090 / F. 955-0092

예천군

김 철 환 _ 현대의원
(757-802) 예천군 예천읍 동본리 522
T. (054)654-7582



상.주.시.의.사.회

상주시 소개

경상북도 서북쪽의 내륙에 위치한 상주시는, 과거 신라시대를 대표 한 고을(경주, 상주) 중 한곳으로 도농복합형 도시로서 동쪽으로 구미시와 의성군, 서쪽으로 충북 보은·옥천·괴산군, 남쪽으로는 김천시와 충북 영동군, 북쪽으로는 문경시와 예천군으로 접해 있고 대한민국의 중심지로서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이고 넓은 평야와 적정한 강수량, 여름철 높은 기온, 많은 일조량 등 농작물 재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여섯 번째로 넓은 지역으로 남한면적의 1.3%, 경상북도면적의 6.6%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서울특별시의 2배 크기 면적에 해당 된다.

옛부터 세 가지 흰 특산물인 쌀과 누에고치, 꽃감이 유명해서 '삼백(三白)의 고장'이라 불렸지만 밀려드는 중국산 명주로 인해 쌀과 꽃감이 명맥을 유지하고 현재는 자전거 도시로 불리우고 있다. 전국 최고의 자전거도시로 관공서나 시민단체가 나서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백 년 전부터 자생적으로 자전거도시가 되었다. 국내에서 유일한 자전거 박물관이 있으며 전국 규모의 산악자전거대회가 매년 개최된다.

상주시의사회 소개

1) 연혁

상주시 승격이전 상주군에는 6. 25 한국 전쟁 후 개원회원으로 박정수의원, 석의원, 김천수의원, 김두관의원, 호산나의원(최치상선생님), 서울의원, 자혜의원, 남산의원 8개



상주시의사회 역대회장

- 초대 석 견(작고)
- 2대 김천수(작고)
- 3대 김두관(작고)
- 4대 최치상(작고)
- 5대 성부흥(상주성모병원)
- 6대 김홍태(김홍태내과의원)
- 7대 이영희(이영희내과의원)
- 8대 김 량(김량정형외과의원)
- 9대 김종술(가톨릭의원)
- 10대 김범진(인재의원)
- 11대 권규돈(권내과의원)
- 12대 이철우(이내과의원)
- 13대 김응환(용한이비인후과의원)
- 14대 손성락(손성락산부인과)
- 15대 이원두(이원두가정의학과의원)

의료기관이 있었으며, 병원으로는 1955년 11월 1일 대구적십자병원 상주분원(내, 외과)이 문을 연후 1957년 7월 3일 상주적십자병원으로 승격되어 지역의료의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고, 1980년 3월 19일 개인 병원으로 상주성모병원(성부흥 선생님이 개설되어 지역의료발전에 힘쓰고 있다. 상주군 당시 초대회장은 석견 선생님이(작고)께서 추대되었고, 2대 김천수 선생님이(작고), 3대 김두관 선생님이(작고), 4대 최치상 선생님이(작고)께서 활동하시다가 1986년 1월 1일 상주시로 승격되면서 성부흥 선생님께서 5대 회장님으로 취임하신 후 선후배 회원들과 지역의료와 의사회를 이끌다가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2) 의료기관 현황

현재 상주시에는 병원 2개, 요양병원 1개, 정신병원 1개 및 의원 46개가 개설되어 있고 봉직의 40명, 공보의 31명이 지역의료에 종사하고 있다.

3) 의사회 활동 및 주요사업

회원간의 단합과 소통을 중시하는 상주시의사회는 자율적인 참여로 매월 월례회, 사안별 긴급모임, 송년회등의 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봄, 가을로 상주시의사 골프대회를 개최하여 회원간 결속을 다지고 있다. 과거 의약분업의 투쟁후부터 회원간 소통이 활발해지고 단합이 잘되어 회장단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또한 전국 최초로 2007년에 상주시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로 통합된 의료연합회를 발족했으며 지역의료의 긴급한 상황 발생시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다.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지역보건사업 및 건강증진에 관한 업무협조 및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시장님 이하 유관단체와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지자체 및 보건소와 협조하여 여러 보건사업(전염병 예방, 모자보건 사업, 성인병 예방사업, 암 예방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시장학재단 후원, 구제역 방역사업 후원, 건강걷기 사업 후원, 전국자전거 대회 후원, 요양원 후원, 상주 시내 체육회 후원 등으로 지역 주민과 더불어 사는 의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리 : 회장 이원두)

임원명단

회장 이원두, 부회장 김응환·손성락, 총무이사 김경홍, 정책이사 김정현, 보험이사 이승구, 법제이사 서동혁, 학술이사 오정현, 정보통신이사 이철우, 감사 김홍태

상주시의사회는 자율적인 참여로 매일 월례회, 사안별 긴급모임, 송년회등의 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봄, 가을로 상주시 의사골프대회를 개최하여 회원간 결속을 다지고 있다.

상주의 관광명소

1. 존애원

경북 상주시 청리면 울리에 있는 존애원은 임진왜란뒤 질병에 시달리는 주민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정죽 성람, 정 경세, 창석 이준, 김 각 등이 계를 모아 운영한 우리나라 최초 사설 의료기관으로 1993년 2월 25일 경상북도기념물 제89호로 지정되어 있다.

2. 문장대

경상북도와 충청북도의 경계에 위치한 속리산은 주봉인 천왕봉이 상주시 화북면 상오리에 있으며 절경을 이룬 문장대는 화북면 장암리에 자리잡고 있다.



3. 경천대

경천대 관광지 내에는 전망대, 아영장, 목곡, 출렁다리, 돌탑과 황토길, MBC 드라마 (상도)세트장, 어린이 놀이시설, 수영장, 눈썰매장 및 식당, 매점 등이 갖추어져 있고, 소나무 숲속의 아담한 돌담길과 108기의 돌탑이 어루러진 산책로와 맨발 체험장 및 황토길이 있으며, 인근에는 "전 사벌왕릉"과 "전 고령 가야왕릉", "화달리 3층석탑", 임진왜란의 명장 정기룡장군의 유적지인 "충의사", "도남서원" 등 여러 문화유적지와, 상주 예술촌 등이 있어 가족과 함께 편안한 휴식과 관광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감의 장, 상주 자전거 축제를 소개하는 축제의 장, 자전거와 관련된 상품을 판매하는 결실의 장 등 여러 가지 경험을 한꺼번에 할 수 있다.

4. 자전거 박물관

자전거의 모든 것이 담긴 자전거 천국으로 자전거의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고 있으며, 자전거 전시실인 만남의 광장 외에도 체험 전시실인 체험의 장, 자전거 문화에 대해 소개하는 공

5. 녹색농촌체험마을

상주시 화북면 용유리 병천(우북동)마을, 낙동 승곡마을, 모동 지장마을, 화북 청화산관광농원, 외서 봉강리마을, 이안 지산리마을등 맑은 물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가장 농촌다운 농촌 마을로, 계절별로 뚜렷한 색깔과 개성을 나타내고 있어 사계절 색다른 체험과 주말농촌체험등 산촌에서만 느낄수 있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상주 지역특산물

(상주특산물은 상주의 고유 브랜드인 "명실상주"가 붙는다.)

1. 명실상주 곱감

곱감특구로 지정받은 상주에서 생산되는 명실상주 곱감은 전국 곱감 생산량의 60%이상을 차지하는 대한민국 대표 명품 곱감이다.



2. 명실상주 쌀

밭맛이 우수한 친환경 고품질 청결미로 예로부터 경상북도 지역의 대표적인 곡창지대였던 상주의 비옥한 토양에서 청정수로 생산된다.

3. 명실상주 한우

자연 친화 사료(감)로 키우는 한우 중의 한우로 종이 보증된 순 한우에서 태어난 송아지만을 엄선하여 키운다.

4. 명실상주 사과

당도가 뛰어난安心사과로 친환경 농자재를 사용하고 농약 사용을 최대한 줄여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5. 명실상주 포도

고령지 포도특구의 명품 포도로 비가림 재배 및 유기물 사용으로 품질이 뛰어나며 일교차가 커서 당도가 높고 특유의 향이 진한 명품중의 명품 포도이다.

6. 명실상주 배

과즙이 많으며 육질이 연하고 당도가 높아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7. 명실상주 오이

낙동강의 깨끗한 물과 농약 사용을 줄인 자연친화적인 농법으로 재배하는 웰빙 오이





군.위.군.의사회

군위군 소개

군위군은 경상북도의 중앙에 위치하여 남북이 짧고 동서가 길며, 북쪽으로 의성군, 동쪽으로 영천시, 서쪽으로 구미시, 남쪽으로 대구광역시·칠곡군에 접한다. 남북이 짧고 동서가 길어 삼각형의 형태를 이루며, 삼각형 밑변에 해당하는 쪽이 북쪽에 면하며 꼭지점이 남쪽을 향한다. 1읍 7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남단에는 팔공산(1,193m)이 솟아 대구광역시와 경계를 이루면서 산맥이 동서로 뻗고, 지맥이 동으로 뻗어 청송군·영천시와 경계를 이루면서 분수령을 형성하여 지형상으로 산지가 많다. 동부는 대체로 산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고로면(古老面) 일대는 해발고도 600~800m에 달해 화산암류의 높은 산지를 이루며, 서부는 해발고도 200~300m의 저산성 구릉지이고, 북부 일대는 해발고도 100~200m의 저산지대이다.

중앙을 가로지르는 위천(渭川)은 고로면의 학암리·낙전리 일대의 동부산지에서 발원하여 의흥면(義興面)·효령면(孝令面)·군위읍을 거쳐 의성군 비안면(比安面)에서 쌍계천(雙溪川)과 합류하여 낙동강 본류로 흐르고, 위천의 지류인 사창천(社倉川)은 팔공산 기슭에서 발원하여 부계면(缶溪面)·효령면(孝令面)을 지나 효령면 병수리(竝水里)에서 본류와 합류한다.

하천유역의 군위읍과 효령·의흥·소보면 등에는 평야지대가 전개되는데, 관개시설이 우수하여 농경에 적합하나 수성암과 편마암의 풍화토인 사양토로서 비

군위군의사회 역대 회장

- 초대 우학봉(인성의원)
- 2대 오덕환(오의원)
- 3대 김정병(성누가의원)
- 4대 박정호(박예의원)
- 5대 김병곤(김병곤내과의원)
- 6대 김교준(성누가의원)
- 7대 이승석(서광외과의원)

군위군의회는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도와 끈끈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최근 의료현황과 최신지견 및 정보교환을 통해 좀 더 나은 지역사회 시민건강에 이바지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

육하지는 못하다. 그 밖의 대부분의 지역은 산간지대이다. 내륙지방에 위치하여 기온의 연교차가 큰 대륙성 기후의 특색을 보이며, 연강수량은 947mm 정도로 타지역보다 적다. 연평균기온은 12℃이고, 1월 평균기온은 -2.4℃, 8월 평균기온은 26.8℃이다. 군을 상징하는 꽃은 개나리, 나무는 느티나무, 새는 왜가리이다.

의사회 연혁 및 의료기관현황

1970년대 중반 인성의원(우학봉 선생님), 오의원(오덕환 선생님)이 개업을 하셔서 진료를 하셨다. 그후 오의원 자리에 (故)김정병 원장님께서 성누가의원을 확장개원하셔서 사랑과 봉사의 기독교 정신으로 20여년간 지역의료 발전에 힘쓰셨으며, 1984년 이후 박정호 선생님께서 박애의원을 개원하시고 3대 의사회 회장을 역임하시면서 군위군 의사회의 기초 틀을 잡아주셨다. 그 후 1987년경 군위병원이 개설되었으며, 군위병원 내과 과장을 역임하신 김병곤 선생님께서 김병곤내과의원을 개원하여 의약분업반대 투쟁시 회장직을 맡으며 단합된 의사회 모습을 보여 주셨다. 현재 성누가의원은 김교준 선생님께서 가업을 이어 받아 노인의료복지에 힘쓰고 계신다. 서광외과의원(이승석 선생님), 현대내과의원(최진수 선생님), 의흥동산의원

(이유신 선생님), 영남한빛의원(정상훈 선생님), 우보큰사랑의원(은종우 선생님), 박안과의원(박성수 선생님)이 차례대로 개원되어, 현재 군위군에는 병원 1개(군위병원), 의원 7개, 보건소 및 보건지소 8개가 개설되어 개원의 7명, 공보의 9명, 봉직의 2명이 진료에 임하고 있다.

의사회 활동 및 주요사업

비록 적은 수의 회원이지만 회원 간의 단합과 친목을 중시하는 군위군의회는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도와 끈끈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최근 의료현안과 의학 최신지견 및 정보교환을 통해 좀 더 나은 지역사회 시민건강에 이바지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 대외적으로 지역 보건소와의 긴밀한 협조아래 여러 보건사업을 시행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의료봉사 활동 및 소외 계층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도 무료의료봉사를 하고 있고, 뜻하지 않는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무료진료나 구호품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정리 : 회장 이승석)

☑ 임원명단 : 회장 이승석, 총무이사 최진수

군위관광지 소개

1. 추천명소

인각사, 삼존석굴

2. 아름다운 자연

신비의 소나무, 장곡자연휴양림, 행복한 밤마을, 왜가리 서식지, 대울리 송림, 학소대 등

3. 문화유적

김수환 추기경 생가, 성결교회, 법주사 보광명전, 압곡사 선사영정, 지보사 삼층석탑 등

4. 체험관광

경북대학교 자연사박물관(054-383-7026)
군위학생야영장(054-383-4370)



초암전통문화학교(<http://sangolschool.com>)
다발연수원관광농원(<http://www.dabal.or.kr>)
참농부(www.happyearth.co.kr)
팔공산 능금마을(<http://dongsan.invil.org>) 등

5. 군위 특산물

• 마늘, 사과,
약물식물(지황, 당귀, 백작약, 황기, 천궁)



6.맛집정보

- 1) 군위참좋은한우(효령면) : 한우갈비살, 불고기 (054-382-8260)
- 2) 군위이로운한우(효령면) : 한우갈비살, 불고기 (054-382-9800)
- 3) 효령매운탕(효령면) : 잡어매운탕, 메기찜(054-382-9088)
- 4) 원두막식당(부계면) : 평사브샤브(054-383-8227)
- 5) 산너머남촌(부계면) : 매기매운탕, 한방백숙(054-383-5445)



봉.화.군.의사회

봉화군 소개

봉화군은 산세가 수려하고 선비의 정신이 깃들은 예절의 고장이다. 1개 읍과 9개 면으로 전체면적의 83%가 오염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자연 경관이 빼어나고 특산물이 많다. 특히, 국립수목원이 서벽 일원에 들어서며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청량산을 위시한 명산과 국보 및 보물들이 산재해 있다.

의사회 연혁 및 의료기관 현황

봉화군은 최북단 오지군부로서 광범위한 산간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일제시대 때 김진규(작고) 원장이 일본의사면허로 영광의원을 개설하여 진료를 보았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정확한 기록은 없다. 1964년 권오형 원장이 동과의원 개설, 1965년 김동수 원장이 영제의원 개설, 1976년 영풍광업주식회사에서 최정빈 관리자가 비영리 의료기관을 운영 했으며 해방후 초창기 개업의 3명, 광산근무의 2명, 수련의 2명으로 낙후된 오지의 의료업무를 보았고 1986년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봉화해성병원이 진료를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병원 1개, 요양병원 1개, 의원 7개 및 보건소 1개, 7개의 보건지소가 지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의사회 활동 및 주요사업

봉화군의사회는 분기별 및 주요사안이 있을 때마다 모임을 가져 친목도모 및

봉화군의사회 역대회장

- 1대 권오형(영광의원)
- 2대 김원길(성민의원)
- 3대 최예환(제일의원)
- 4대 장명준(장내과의원)
- 5대 전우진(동산의원)
- 6대 조진만(조가정의학과의원)
- 7대 김태겸(삼성의원)

의료현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회원 수가 적어 가족적인 분위기와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단합하는 의사회로 진일보 하고 있으며, 고령의 노인인구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노인건강 및 만성질환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지역축제 및 체육대회, 노인잔치 등을 후원하고 개별적으로 장학회 지원 및 의료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에 이바지 하고 있다.

임원명단

회장 김태겸, 총무이사 김강도

(정리 : 회장 김태겸)

봉화의 관광명소

1. 청량산 도립공원(하늘다리)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예부터 소금강이라고 전하여지는 명산으로 기암절벽이 12봉우리를 이루며 태백산에서 시원한 낙동강이 웅장한 절벽을 끼고 유유히 흐른다.



2. 서벽 금강 소나무숲

금강송 군락지 - 한국이 자랑하는 최고의 목재 "서벽금강소나무 숲"은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에 위치한 80ha 규모의 굽기가 평균 50cm가 넘는 약1,500그루의 금강소나무(춘양목)이 자생하는 숲으로 1974년 채종림으로 지정된 이후 이곳에서 채취한 종자로 묘목을 키워 전국의 산림에 심었으며, 2001년에는 궁궐이나 전통사찰 등 문화재 보수복원을 위한 '문화재용 목재 생산림'으로 지정 관리하고있다.



3. 백천계곡

청옥산(1,276m) 아래 위치한 백천계곡은 물이 맑고 풍부하며 수온이 낮아 청정수에만 자라는 빙하기 어족인 열목어가 서식하고 있으며 열목어 서식지중 세계 최남단으로 천연기념물 74호로 지정되어있다.

4. 오전약수관광지

물야면 오전리에 소재한 약수탕 관광지는 조선 성종때 어떤 보부상이 발견 특히 물맛이 좋은 초정대회(椒井大會)에서 전국 최고의 약수로 판정 받은 바 있으며 위장병과 피부병에 특효가 있다하여 연중 3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 약수로 만든 닭백숙을 즐기고 있다.



5. 래프팅(명호면 이나리)

낙동강과 운곡천이 만나는 이나리 강변(매호유원지)에서 출발하여 낙동강을 따라 기암괴석의 절

경을 감상하며 래프팅의 스릴을 즐길 수 있으며 가족단위, 단체로 즐기기에 우리나라 래프팅의 최적지로서 현재 래프팅 관련 업체는 21개 업체에 200여대의 래프팅이 운영되고 있다.

6. 문화관광부 유망축제로 선정된 송이축제 및 은어축제

1) 송이는 20년~80년생 소나무 사이에서 배수가 잘되고 유기물이 적게 쌓인 마사토 환경에서 자생한다. 일반적으로 9월 하순에서 10월초순까지 많이 생산이 되며 올해도 2011년 9월 30일부터 10월3일까지 송이축제 기간을 잡고있다. 전국 최고 품질의 자연산 송이향기를 접할수 있다

2) 은어는 조선조 선조임금때 임진왜란 당시 수라상에 올려던 진상으로 은어는 다른 철보다 여름철에 맛이 좋을 뿐 아니라 영양가도 높은 사실이 밝혀졌다. 식욕을 돋구기 위해서 은어튀김이나 소금구이를 해먹으면 일품이다.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유망축제로 선정이 되었으며 제13회 봉화 은어축제는 "가족과 함께 떠나는 동심여행 봉화로"란 주제로 오는 7월 30일부터 8월 7일까지 9일간 봉화읍 체육공원, 내성천 일원에서 은어잡이 체험, 공연행사, 전시 및 부대행사로 개최된다.



봉화의 맛집

1. 용두식당(산송이 요리전문점)

흰쌀과 흑미, 좁쌀, 대추, 은행, 밤 등이 들어간 송이버섯 돌솥밥을 맛볼수 있다. 유기농으로 재배한 신선한 채소를 사용하고 송이버섯 찌개와 전골도 좋으며 봉화지역에서 생산된 송이를 1년내 저장해 놓고 각종 송이요리를 선보이고 있다.

2. 봉화한약우프라자(약초먹여 키운 한약우의 맛)

한약 직판장 겸 식당. 산약지인 봉화의 특성에 따라 작약, 백출, 당귀 등 산약초를 먹여 키운 봉화 한약우를 사용하여 육질이 좋다. 전국 최고의 맛에 가격 또한 저렴하여 가족단위로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054)674-3400 한약우 택배주문가능





삼행시 및
사행시
입선작

지난 5월 29일(일) 경주코오롱호텔 야외정원에서 열린 제33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삼행시 및 사행시에 「계절의 왕, 고운빛」의 시제에 총 60여 작품이 출품되어 입선된 작품이다.

〈시사 삼행시 시상〉

- | 장 원 | 류형균(포항, 선린재활병원)
- | 차 상 | 김교정(경산삼성병원 정성화 회원 가족)
이봉구(경주, 이피부과의원)
- | 차 하 | 노서연(김천, JS성형외과의원 노유환 회원 가족)
이미영(경산, 마미안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 차규동 회원 가족)
조은서(구미, 삼성이비인후과의원 조우령 회원 가족)
- | 참 방 | 정재호(김천, 한양정형외과의원)
하영희(경산, 푸른마취통증의학과의원 김석희 회원 가족)
서민진(경주, 맘존여성병원 김연경 회원 가족)

장 원

고운 빛(류형균)
고통과 절망이라는 캄캄한 어둠에서
운명의 이름으로 희망의 꿈 찾게 해 준
빛의 상징 생명의 은인 그 이름 의사



차 상

고운 빛(김교정)
고통의 나날들 병마와 싸우며 지낸 세월
운명이려니 그저 받아들이며 살아온 나에게 희망의
빛을 선물해 주신 당신,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운 빛(이봉구)

고색창연 천년고도 서라벌에 함께 모여
운치있는 몸짓으로 장단맞춰 춤을 추며
빛나는 의사상을 새롭게 빚어보세



차 하

계절의왕(노서연)

계절은 바뀌어도 언제나 그마음 그대로

절제된

의사 본연의 자세로

왕진하시는 아빠, 사랑해요!

고운 빛(이미영)

고운맘, 고운 얼굴로 맞이하는 사람

운명을 함께 하며 살아가는 사람

빛처럼 아름다움을 실천하는 그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계절의왕(조은서)

계속 변함없이

절대 감기 걸리지 않도록 저를 위해 노력하시는

의사선생님께서서는

왕짜증나는 세균들을 물리쳐 주시죠

참 방

고운 빛(정재호)

고운자태 시간지나 사라져가도

운명으로 맺어졌던 나의 아내여

빛같은 고운 그대사랑 영원하리라

계절의왕(하영희)

계산기처럼 똑똑하고

절개가 곧은

의사선생님!

왕 입니다요~~ ^^

고운 빛(서민진)

고생하시는 부모님, 계절은 변하지만

운명적인 직업이라 생각하시고 한결같이

빛처럼 밝은 얼굴로 환자를 대해 주세요

화 제 작

계절의왕(포항 신명준외과의원, 신명준)

계단을 올라본 사람은 안다

절대로 끝이 없어 보이지만 그 길의 끝에는 땀흘린 사람만이 아는 기쁨이 있다

의사의 길도 그렇다. 그대 지금 힘이드는가, 포기하고 싶은가!

왕도는 없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가야 한다

고운 빛(경산 푸른마취통증의학과의원, 김석희)

고백합니다

운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빛처럼 고운 저의 아내를 만난 것은.....



오월의 장마

허리가 몹시 아프다 했더니
어제도 오늘도
하염없이 비가 내린다
맺은 인연 끊기 어려워
흘리는 눈물처럼 소리 없이 내리고
처마 밑 낙숫물 소리 곱친다

부슬비 내린다
목마를 때 오는 비를 시우(時雨)라 했든가
앞뜰 나무 그늘 짙어 가고
화분의 꽃 봉우리 부푼다

웬만한 비라면
나도야 우산 없이 거리로 나가자
겨울 내내 웅크리던 몸
빗물에 쌓인 문지 씻어내고
오월의 향기 실은 바람 들이마시며
걸어가자



손 장 락 원장
손의원, 안동

이육사의 시상



이육사는 1904년 4월 4일(음) 부친 이가호(李家鎬) 모친 허길(許吉)의 둘째 아들로써 형 이원기, 동생 이원일, 이원조, 이원창, 이원용 형제가 있었다.

1910년 일제에 의해 국권침탈이 되자 조부가 소작인들에게 땅을 주고 종들에게 자유를 주며 양반의 행색을 그만두게 되니 가세는 쇠퇴일로로 걷는다.

그때, 백형을 따라 예안에 있는 신교육기관인 보문의숙(寶文義塾)을 다니기도 했다. 대구로 이사온 후(1920년대) 석재(石齋) 서병오(徐丙五)에게 서예와 그림을 익히기도 했다. 대구 명문지사 이동진(시인 이상화의 조부) 선생이 세운 지사 양성소인 교남학교(대륜학교전신)에 동생 이원조와 함께 다니게 된다. 이를 근거로 해서 육사, 여천 형제 문학비가 2003년 10월 대륜고등학교 교정에 세워지게 되었다.

시골에서 도시로 나온 아들들에게 어머니 허길 여사는 퇴계 이황의 후손이라는 자부심과 친정 아버지가 의병장 범산(凡山) 허형(許衡)인데 나라를 위해 자기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리신 분이라는 고

귀한 뜻을 마음에 새겨주었다.

그렇게 아들들에게 교육에 힘을 써서 항상 감동을 일으키도록 했다.

1924년 육사 이원록은 와세다대학에서 공부하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다. 일본에 온 원록은 1923년 9월 1일에 발생한 관동대지진을 핑계 삼아 일본인들이 자행한 조선인 대학살에 큰 충격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마침내 본격적인 항일투쟁에 투신하게 된다. 학문보다는 행동과 실력으로 일제를 제압하고자 중국으로 건너가 의열단에 가입하고 독립운동가들과 비밀결사의 임무를 수행했다.

1927년 10월 18일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미수사건이 발생하였다.

철곡출신 장진홍(張鎭弘)은 폭탄제조 기술을 중국에서 배워와 요인암살과 중요시설 파괴를 계획했다. 조선은행 대구지점에서는 도화선을 절단하여 폭파를 미수에 막았으나 다른 세 곳에 배달하려던 폭탄이 연달아 폭파하여 경찰과 행인 여섯명이 중경상을 입고 은행 유리창이 파괴되었다. 비밀 결사대원 소행으로 체포된 사람이 여덟 명이었는데 그중 자기



최유근 원장
최유근안과의원, 안동

육사의 생애는 오직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자유를
쟁취하기위한 투사였지만 그는 무력이나 폭력을 쓰지 않고
시적재능을 타고나서 민족주의행동과 경험에서
시상을 얻어 시를 썼다.

를 포함한 백형과 동생 두 사람 사형제가 구속되었다. 이원록은 자기 혼자 한 것으로 자
백했으나 다른 사람들도 서로가 자기가 했다고 하니까 여덟 명 모두 유죄선고를 받아 옥
고를 치뤄야 했다. 이원기는 고문 후유증으로 불구가 되었고 이원록은 수인번호 264를
딛 육사(陸史)를 필명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장진홍이 1929년 2월 14일 체포되므로 무고한 여덟 명은 모두 석방되고 그는 사형선
고를 받고 대구 형무소에 복역중. 1930년 6월 5일 36세의 나이로 옥중에서 스스로 목숨
을 끊었다. 1929년 11월 3일 광주학생의거가 일어나자 육사는 예비검속되어 대구 형무
소에 또다시 수감되었다. 그는 1944년 1월 16일 북경감옥에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17번
이나 옥고를 치렀다. 육사의 생애는 오직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자유를 쟁취하기위한 투
사였지만 그는 무력이나 폭력을 쓰지 않고 시적 재능을 타고나서 민족주의 행동과 경험
에서 시상을 얻어 시를 썼다. 그의 형편을 절정(絶頂)이라는 시에서 나타냈다.

매운 계절(季節)의 채찍에 갈겨
마춤내 북방(北方)으로 휩쓸려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高原)
서리빨 칼날진 그 우에 서다.

어데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발 재져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감아 생각해 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된 무지갯가 보다.

- 절정은 최고조(最高潮) 기쁨, 슬픔, 한희, 희열 등을
감정의 최상의 상태, 미움, 악의, 증오, 동통, 뼈저림의 최고정상
- 채찍 : 채찍, 매, 가죽이나 말총, 새끼 따위의 회초리
- 한발 재져 디딤곳조차 없다 : 좁은 감방 정원초과 우리에게 든 짐승취급
- 겨울 : 일제하 식민지 상태, 삼엄한 어두컴컴하고 춥고 으스스한 외부환경
- 무지개 : 덩어리에 채찍으로 후려친 멍든자국
선혈이 낭자하게 피하에 멍으로 남 아있는 구렁이 기어가는 형상의 멍자국
-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고 겨우 굴뚝이 굴러가듯 몸의 굴신이 안되는 춥고
아프고 배고픔의 자포자기의 상태가 절정이라는 시제로 나타냈다



“아프가니스탄” 청진기

의사들에게 꼭 필요한 기구를 한 개만 선택하라면 나는 서슴지 않고 청진기를 고르겠다. 지구촌 어디에서나 청진기는 곧 의사를 상징한다. 처음 청진기가 발명된 이래 많은 변천을 거듭해왔다. 요즘에는 전자 칩을 내장하고 증폭장치를 부착한 획기적인 청진기도 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의료산업이 발달할수록 환자들과의 접촉은 점차 단절된다. 전자 청진기도 마찬가지다. 인간적인 면보다는 전자기기의 정밀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물론 나름대로 장점이 있겠지만 환자와 의사 사이에는 따뜻한 정이 흐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귀퉁한 사람냄새를 풍기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풍토가 사라질까봐 두려워진다. 진료실에선 믿음과 신뢰가 첨단과학 기술보다도 훨씬 우월하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청진기를 통해서 다양한 숨소리를 듣는다. 가래 끓는 소리나 천명음, 폐렴 때 나오는 수포음, 파찰음, 파열음 등. 아울러 심장소리와 늑골 골절 등에서 들리는 마찰음, 소화기관의 운동소리 등도 듣는다. 어릴 때 청진기는 요지경이었다. 청진기를 가슴에 대고 진찰하시던 의사 선생님에게 무한한 호기심을 느꼈다. 청진기를 귀에 꽂고 아무 말 없이 듣기만 해도 죽집게처럼 기가 막힌 처방을 해주셨다. 참으로 놀라웠다. 추운 날에도 의사 선생님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럽기만 했다. 설사를 하거나 배탈이 나면 살그머니 눌러보기도 하고 두 손으로 배를 어루만져 주기도 하셨다. 그리고 청진기를 내 몸에 대고 눈을 지그시 감으셨다. 그런 모습을 보면 포근하고 아늑하면서 편안해졌다. 청진기는 정말 신비한 물건이었다.

의과대학에 입학한 후 청진기를 갖고 싶어 얼마나 안달했는지 모른다. 진단학을 공부하면서 비로소 청진기를 손에 넣을 수가 있었다. 하지만 처음으로 어머니의 가슴에서 심장소리를 듣고는 얼마나 답답하고 실망했는지 모른다. 이런 희미한 소리를 듣고 어떻게 죽집게 같은 진단을 할 것인지 막막하고 당황스럽기만 했다. 어머니의 가슴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맛있는 방아 찢는 소리에 불과했다. 도무지 평범한 소음일 뿐이었다. 단조로운 심장소리 그리고 거친 숨소리도 별반 특징이 없었다. 뱃속에서도 무의미하게 꼬르륵거리는 소리만 날 뿐이었다. 기대만큼이나 실망스러웠다. 평생 재미없는 청진기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 장래의 삶도 이렇게 단조롭고 특징이 없다고 생각하니 한심스럽기만 했다. 억울한 생각도 들었다. 한창 청춘을 구가하고 싱싱한 젊음을 짜릿하고 활기차게 살아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황홀하고 환상적인 꿈을 채워 주지는 못할 것 같았다. 때론 청진기를 보면서 의학공부에 대한 회의가 들고 의사라는 직업에 매력을 잃게 되기도 했다. 임상실습 중에는 어쩔 수 없이 지니고 다니면서도 참으로 재미없는 지참물이었던. 애물단지일 뿐. 그러다 차츰차



이종규 원장
연세기정의학과의원, 울진

의사들에게 꼭 필요한 기구를 한 개만 선택하라면
나는 서슴지 않고 청진기를 고르겠다.
지구촌 어디에서나 청진기는 곧 의사를 상징한다.

춤 질병과 관련된 소리를 듣고 감별진단에 집중하다보니 조금씩 애정이 늘어났다.

진료실 옷걸이의 한쪽에 오래된 청진기 한 세트를 가지런히 걸어 놓았다. 갖은 풍파를 다 겪는 동안 진동판 부착 밴드가 낡아서 반창고로 간신히 붙여놓은 것이다. 낡았지만 유달리 애착을 느끼는 청진기다. 그동안 죽은 이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의 가슴에서 온갖 정보를 들려주었다. 진단에 도움이 되는 특징적인 소리와 보채는 아이들의 두려움까지 전해 주었다.

그 청진기를 사용할 때마다 난민촌에서 함께 일했던 “아프가니스탄” 의사의 애처롭던 눈동자가 떠오른다. 동년배로 여겨지는 그는 수업을 제때에 까지 못해 더욱 초췌하고 거칠게 보였다. 혹독한 추위를 막아주지도 못하는 까만 털모자를 깊이 눌러 썼어도 좁은 모자 채양 아래 커다란 눈망울이 유난히 초롱거렸다. 다국적 의료진을 거들기도 하고 서툰 영어로 통역도 했다. 추위에 곱은 손으로 밀려드는 환자를 진지하게 진료하던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간간이 진료탁자 위의 내 청진기를 빌려서 환자들을 진료하곤 했다. 끝없이 늘어난 대기 환자들은 이미 공포와 추위와 굶주림으로 한 가지 표정이었다. 멀리 가물가물하게 보이는 천산산맥의 만년설 뒤에서 포성이 간간이 들려 왔다. 한편에서는 천막을 설치하면서 빵을 배급하고 다른 한편에선 진료를 했다. 질척이며 쉬지 않고 내리는 비는 더욱 몸을 움츠러들게 했고 난민촌 사람들의 행동을 굼뜨게 만들었다. 천막 추녀 밑에서 손바닥을 오그려 빗물을 받는 계집아이가 눈에 띈다. 딱딱한 빵을 불리며 대기 줄에서 이탈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몹시도 측은하게 보였다. 그런 모습에 잠시라도 눈길을 줄 틈도 없이 차례를 밀치고 들어온 험악한 탈레반 병사의 총상 부위를 치료하고 나니 계집아이는 어느새 자취가 없었다. 순식간에 대기 줄에서 이탈된 채 저만치 뒤흘무니에서 모습이 보였다. 미처 통역에게 그 계집아이를 데려오라고 할 겨를도 없이 또 다른 환자가 앞으로 다가왔다. 옆에서 진료를 돕고 있던 “아프가니스탄” 의사가 내 의도를 알아채고 벌떡 일어나서 뛰어 나갔다가 돌아왔다. 내 얼굴을 쳐다보면서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진료탁자 앞으로 밀려드는 환자들을 최선을 다해 보살피는 것뿐이었다.

국경을 지키는 일은 러시아병사들의 몫이었다. 그 병사들의 채근에 못 이겨 밀려드는 환자들을 외면한 채 진료 보따리

를 꾸려야 했다. 오후 5시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더 남았는데..... 동짓달의 혹독한 추위는 어둠을 일찍도 불러들였다. 더 어두워지면 지뢰밭을 통과하기가 어렵다며 연신 기관총을 들어 철수하지는 신호를 보냈다. 바로 그때 그 “아프가니스탄” 의사는 내 등을 툭툭 두드리면서 강렬한 눈빛으로 애원을 했다. 그는 우리 의료진이 돌아가면 다시는 방문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내 손에 들고 있던 청진기를 가리켰다. 진료를 받지 못한 채 남아있는 난민촌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 청진기를 남겨 달라고 했다.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고 했다. 하지만 청진기는 내게도 없어서는 안 되는 물건임을 그도 잘 알고 있었다. 다국적 의료진은 “타지키스탄”에서의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청진기를 도저히 그에게 양도할 수 없었다. 몇 차례를 망설이다가 아주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주 짧은 순간 그의 얼굴에 스쳐간 실망하는 표정이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에 남아있다. 그는 자기 민족의 소리를 듣고 싶다고 했다. 민족혼의 소리가 그립다고 했다. 이 끔찍한 전쟁으로 상처뿐인 자기 민족의 가슴속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했다. 빠른 아랍어와 서툰 영어를 섞어가며 통역과 나를 번갈아 쳐다보며 되뇌었다. 통역의 목소리가 가늘게 멀리다가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몹시도 크게 들렸다. 갑자기 빗방울이 굵어지면서 천막 안으로 비바람이 몰아쳤다. 무표정이던 의사의 얼굴이 잠시 일그러졌다. 등을 뒤로 돌린 채 얼굴에 몰아친 빗방울을 훔쳐 내렸다. 눈물이었을까 틀림없다. 전쟁이 끝난 지금쯤은 은발이 되었을 그는 자기민족의 진솔한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려고 여전히 애를 쓰고 있겠지.

날씨가 싸늘해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진료실 문턱을 넘나드는 횡수가 잦아진다. 옷을 들추며 가슴에 청진기를 대어보려면 민망할 때도 더러 있다. 하지만 정신을 집중시키면 진실한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한다. 심장의 고동이나 질병과 관련된 소리는 덤이다. 진정한 의사는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질병은 물론 마음까지도 다스릴 수가 있다. 나는 아직도 마음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면 진실한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한다. 바로 의사로서 가장 행복하고 만족한 보람의 순간이고 희열이다.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는 숨결이 깃든 민족혼의 소리를 들어볼 날이 틀림없이 있겠지.



설레임...
 약간의 어색함...
 그렇게 시작된 우리들의 첫 만남...

황미림 (에스포항병원 물리치료사)

어느덧 내가 입사한지 2년 반이 다 되었다. 에스포항병원이 개원한 시간도 2년 반이 되었다. 개원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모두들 한마음으로 힘들게 달려왔다. 서로가 안쓰러워하면서도 힘들어하는 동료들의 어깨를 토닥여주지 못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보니 이젠 모두가 지쳐 있다.

2011년 시무식에서 병원장님께서 “여러분들은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 직원 여행한번 다녀오세요.”

야호~~~ 말씀만 듣고도 모두들 신이나 어쩔 줄 몰랐다. 애초 계획은 일본으로 3박 4일이었으나 대 지진 때문에 급하게 제주로 일정을 변경하여 우리 모두의 첫 여행을 제주로 시작하게 되었다.

‘문자왔송~ 문자왔송~’ ㅋㅋㅋ

제주도 직원단합연수 1차 조모임을 알리는 상큼한 문자 한통이 내 마음을 설레게 하였다. 어색함과 설레임이 공존한 첫 회의 시간.

만장일치!! 3박 4일 동안 우리들을 휘어잡아줄 정관경 선생님을 조장으로 선출하고, 제주도에서 보낼 하루하루를 이야기하며 한껏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드디어 4월 10일 1차수가 출발 하는 날이다.

훗... 얼마나 기다렸는지... 남아있는 직원들은 자기 순서를 꿈꾸며 부러워한다. 뱃속의 8개월째 접어든 아기천사에게도 멋진 풍경을 보여주기 위한 나는 마냥 설레었다. 팀원들에게 살짝 부담은 안겨주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다들 그런 내색 없이 공항에서부터 나를 너무도 반갑게 맞아주어 한결 마음이 편안해 졌다.

이렇게 우리들만의 첫 여행은 조심스럽게 시작되었다.

첫째 날 제주의 아침은 너무도 평온하고, 햇살을 가득담은 푸른 하늘은 마치 우리일행 모두를 환영하는 듯한 착각을 느끼게끔 해주고 있다. 여행 1일차 스케줄의 시작은 서커스공연으로 시작하였다. 이후 오설록 녹차 밭과 전 세계 여러 나라의 명소를 축소해놓은 소인국 테마파크, 석부작 테마파크를 거쳐 마지막 일정인 천지연 폭포에 도착하였다. 천지연 폭포는 제주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꼭 들르는 코스로 천연기념물 제163호로 지정되어 있다. 길이 22m, 너비 12m, 못의 깊이 20m로 안산암으로 이루어진 기암절



제주의 아침은 너무도 평온하고,
햇살을 가득 담은 푸른 하늘은
마치 우리일행 모두를 환영하는
듯한 착각을 느끼게끔 해주고 있다.



벽에서 폭포가 떨어진다. 자연그대로의 경관을 볼 수 있는
곳에서 1일차 일정을 마무리한다.

여행 2일차 아침이다. 전날 저녁은 다들 많이 피곤하였
는지 일찍(?) 쉬고, 정시에 로비에 집결하는 이번이 일어
나기도 하였다. 이날 아침이 말쑥한 모습을 본 마지막 아
침이었다. 이날 일정은 마라도 여행과, 여미지식물원 방문
으로 우리팀에서 회의하여 코스를 정한 일정이다. 마라도
행 배에서 전날저녁 팀웍을 위해 손가락마다 칠한 빨강매
니큐어를 서로 사랑하는 V를 그리며 단체사진도 찍었다.

넘실거리는 파도에 요동치는 배 위에서 혼자서는 서있기
도 힘들었다. 서로가 서로를 잡아주고 넘어질까 걱정해주
면서 정말 가족과 같은 정을 느낄 수 있기도 하였다.

‘대한민국 최남단 마라도’ 정말! 정말! 아름다웠다.

‘아가야! 여기가 네가 태어날 대한민국의 최남단 이란
다. 네가 태어나면 우리 다시 한번 오자~’ 혼자 속삭였다.
부끄러워서~

해녀가 직접 건져 올린 해산물을 바닷가에 앉아 먹고
있자니 정말 신선놀음이다.

이 대목에서 영상통화 연결해서 외래 진료 중이신 병
원장님께 자랑(?) 한번. ㅎㅎㅎ

너무 좋아 하신다. ‘병원장님 사랑해요!~’ 이구동성으
로 외쳤다. 아~~ 이제 마지막 밤이다. 이를 어쩔고 너무 서
운하다. 다들 많이들 아쉬워한다.

1번 오빠부터 15번 막내까지 여행에서 너무 많은 걸 얻
었다. 출발 할 땐 부원장님, 총무과장님, 라과사장님, 여러
선생님들. 오늘 마지막 날이다. ㅎㅎ 그런데 이젠 다들 언
니, 오빠다. 1번 오빠(연구오빠) 오늘 ‘드림’ 두드리신다.
2번 오빠(준현오빠) ‘기타’ 잡으셨다. 4번 오빠(관섭오빠)
‘마이크’ 들고 사회 보신다. ㅎㅎ 3번 언니(효정언니) 참
지 못하고 춤추신다. ㅋㅋㅋ 동생들 못 참는다. 다들 일어
서서 난리 친다. 우와~~~ 이젠 하나다.

너무~ 아름다운 밤이었다. 우린 이제 병원가도 ‘가족’
하기로 했다. ‘15남매’ ㅎㅎㅎ

직원여러분... 남은 차수 모두들 재밌는 여행 되세요.
1차수보다는 쩌끔만 안 재밌게 노세요. ^^
사랑합니다. 모두들.





몬테네그로 라이프

별난 취미 바이크 이야기

우선. 맨날 반복되는 일상이 지겨워 일탈을 찾습니다. 가끔 뭔가 핫것을 해야 가끔은 열심히 살고 싶은 기특한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 우선 다들 하시는 골프를 군의관 시절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번뇌의 연속입니다. 몇년이 지나도 실력이 늘지를 않습니다. 점점 흥미를 잃어가고 같이 라운드할때 스코어 자랑하는 후배를 주 패고 싶어지고 그늘집에 죽치고 앉아 술이나 먹고 싶어집니다. 피폐해지는 정신건강을 위해서 골프를 접었습니다.

다음에 테니스 이거 참 좋은 운동인데 말입니다. 저질 체력과 게으른 천성때문에 참여 어렵습니다. 포기하기 싫어 1년간 용하다는 코치를 찾아 레슨도 받아 보았지만. 결국 이제는 개고기 먹듯이 아주 가끔씩 잊을만 하면 한번씩 운동을 합니다. 이제 식구들이 인정해줄수 있는 건전한 취미가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이번엔 아주 특색있고 자극적인 초경량비행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아주 신났습니다. 우리 아파트 위로도 날고 회룡포, 경천대 막 날아 다닙니다. 이것도 잠시, 몇달 지나니 지겨워 집니다. 결정적으로 교관이 비행기 안에서 담배를 못 피게 합니다. 한번 뜨면 한참을 날아야 하는데, 고역입니다. 아주 담배 피고 싶으면 너 비행기 내가 사서 피라는 식입니다. 좀 지겹기도 하고 잘되었다 싶어서 비행기 접었습니다. 깊은 사색을 했습니다. 진정 지금 하고 싶은것이 무엇인가.

멋진 생각이 비둘기 처럼 머리속에 내려 앉았습니다. 예전 고삐리때 잘 나가는 친구들이 당시 2싸이클 MX 라는 바이크를 타고 다녔었습니다. 절망적인 머리에 대학갈려면 열심히 공부하는 것 뿐이었던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아버지가 바이크 사라고 돈 줄리는 절대 없고, 내돈 벌면 바이크는 꼭 사겠다고. 그런데 그동안 잊고 산 것입니다. 막상 바이크를 탈려니 스승이 없습니다. 코치, 레슨프로, 교관 이런직업 자체가 없더군요. 열심히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바이크 잘 탈듯하고, 인간성 좋을듯하고, 나이가 비슷하며, 제 근처에 서식하고 있는 라이더 한명을 찾았습니다. 직업이 중학교 도덕 선생님입니다. 직업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목사님이나 스님은 찾아도 없더군요. 헨편 번호를 알아낸 다음



박재홍 원장
세종의원, 문경



에 아주 정중하게 한번 만나자고 전화를 했지요. 바이크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제가 생 초짜인 걸 알고 난 감해 하더군요.

맥주잔이 비어가고 몇천원 더 비싼 안주가 왔다 갔다 했을 뿐인데 나올때는 바이크 같이 타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한 7년전 이야기네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즐기차게 바이크만 타고 돌아 다니고 있습니다.

바이크의 매력 그리고 여행 이야기

바이크의 매력은 처음엔 말타듯이 특이한 탈 것이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자동차를 좋아하듯이 장난감이지요. 가랑이 사이에 묵직하고 무식해보이는 엔진 하나달고 덜덜거리고 달리면 그냥 재미있습니다. 쓰로틀을 당기면 덩치큰 녀석이 두두둥하고 앞으로 쭉 나갑니다. 처음엔 불안감으로 근거리를 다니다 익숙해지면 멀리까지 달리게 됩니다. 걱정하고 달리면 우리나라는 하루만에 못갈곳이 없습니다. 동, 서, 남쪽, 쪽 달려 가다보면 바다가 나옵니다. 특히 해안가 도로를 달릴때 한쪽엔 바다 다른 한쪽엔 아름다운 산이 있을때 헬멧속에서 야호 소리가 절로 납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오픈카 보다 조금더 자극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엔 이렇게 마냥 달리는 걸 즐깁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면 때를 지어 다니게 됩니다. 혼자 뿐인 무인도에서 페라리를 몰고 다니면 별 재미가 없겠지요. 누가 봐줘야 맛이 납니다. 라이더들이 때로 모이면 서로 비교하고 아는척 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더 멋진 바이크를 보면

말없이 갸웃질만 하는 듯하지만 사실은 침을 꿀꺽 꿀꺽 삼키고 있지요. 일부는 달리는 것 보다 떼지어 노는 것 그리고 여기 저기 맛집 찾아다니는 것에 더 빠지는 분들도 있더군요. 어찌면 바람직 할 듯 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지겨워지면 나중엔 더 멀리 가고 싶어 집니다. 우선은 제주도 배에 바이크를 태우고 당당하게 몇일 여행을 하고 옵니다. 그러면 동네에서 대단한 고수 났습니다. 다녀오지 못한 라이더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사지만 약발이 떨어지면서 점점 용감해 지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중국 바이크 여행입니다. 2009년 운남으로 갑니다. 일단 계획은 멋지지요. 차마고도 비포장길을 바이크로 달려가서 야영을 한다. 마지막은 상그리라에서 야크고기로 배를 불린다. 환상적인 기대속에서 출발 하지만 죽을 고생을 하고 돌아 옵니다. 야크고기 수유차 꼴도 보기 싫어집니다. 하지만 몇달이 흘러가면 그건 고생이 아니라 멋진 추억이었다는 기가 막힌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오는 여름, 이번에는 가까우면서 좀 더 중국보다는 화장실이 깨끗할듯한 일본으로 바이크 여행을 계획합니다. 2010년 일본 world tour network 라이더분들의 초대를 받고 일본으로 갑니다. 한2년전에 몇분의 일본 라이더분들이 우





리나라를 방문한적이 있는데 열심히 고기 굽고 병뚜껑 따면서 비빔적이 있거든요. 그 보답이랍니다. 사진에 바이크에서 두손들고 벌서고 있는 이마이 상도 그중 한명입니다. 하지만 일본, 의미를 찾기위해 열심히 달려도 우리나라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단지 고속도로를 바이크로 달릴 수 있다는 것. 근데 통행료가 장난이 아닙니다. 알곤투는 라면 한그릇에 단무지 두쪽. 거의 만원돈을 합니다. 순간적으로 모두 쪼잔해 집니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 그리고 세계여행 실전 연습을 위해 비가 와도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합니다. 몇일 비속에서 야영을 했더니 젖어서 푹푹하고 꼴이 말이 아닙니다.

초대해준 분들이 세계여행에 대한 세미나도 하고 먹거리도 열심히 챙겨줘서 고마웠긴 했습니다. 사진에 무식하게 커보이는 혼다 발키리라는 바이크를 타고 있는 마쓰오상이 보이실 겁니다. 철도 공무원을 하다 정년퇴직후에 잡자기 허파에 바람이 불어 무작정 세계여행을 떠난 분입니다. 지구를 두 바퀴 돌았습니다. 두번째 여행의 최종 도착지는 한국이었습니다. 담양 근처인가에서 같이 야영을 한 적이 있는데 재미있는 분이더군요. 911사태때 근처에 있었다며 연기나는 쌍둥이 빌딩앞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더군요.

사진의 노란 미니밴의 주인은 부자간에 저 차로 세계일주를 하였던군요. 차에 있는 곳곳에서의 낙서가 여행의 흔적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금년 2011년 여름엔 보다 완벽한 곳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오스 물가 싸고 사람들 친절 하고 바이크 여행, 강추합니다. 근데 라오스 저

기 위쪽으로가면 맛있는 피자도 준답니다. 조금 야채를 많이 넣어달라고 부탁하면 좀 특이한 폴도 토포해 준답니다. 먹고나면 기분도 좋아진답니다. 기대 됩니다.

요즘은 우리나라에도 바이크에 야영장비를 묶고 세계여행을 떠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러시아 몽골 유럽을 횡단한 분들. 미대륙을 알래스카에서 남미 유수아리아까지 횡단한 분들도 있지요. 저와 동갑인 수의사 한분은 몇년전 스즈키 650cc바이크를 타고 세계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창을든 마사이족 옆에서 잠을 자야 했답니다. 여행이야기 듣고 있으면 밤이 세는줄 모르게 재미있습니다. 바이크로 세계여행을 하려면 대략 2년에서 4년의 기간이 필요하고 비용은 5천만원에서 8천만원 정도가 필요하답니다. 빌어먹고 다니는가 여유잡고 다니는가의 차이겠지요. 저도 세계일주 여행을 떠나고 싶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분명히 이렇게 어영부영 살다가 죽지 싶습니다.



바이크 상식

1. 바이크 분류

1) 아메리칸

낮은 차체 때문에 안전할듯 보여 우리가 흔히 처음 취미로 먼저 생각하게 되는 할리 데이비슨 스타일로 알려진 바이크입니다. long and low. 쉽게 발이 지면에 닿고 여유 잡으면서 천천히 달리고, 멋진 바이크 배기음과 뺨대를 즐기는 것이지요.



뭔가 해골 쇠시슬등을 몸에 감고, 양아치 분위기를 내면 더욱 좋습니다. 혹, 아는분이 지나가도 마스크 선글라스 등으로 완전 무장을 하고 있기때문에 상상으로도 저를 알수가 없습니다 (알면 곤란하지요 ㅎㅎ).



2) 투어러

신사들의 바이크입니다. 장거리 그리고 고속 여행을 위해서 첨단 장비 그리고 수납공간등 편의성이 뛰어 납니다.

3) 엔드류

만약 바이크로 세계여행을 하고 싶다면 선택해야 하는 바이크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악천후에 장거리 여행을 해야하기



에 그리고 예상치 못한 비포장 도로까지 달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수리가 쉽고 튼튼합니다.

4) 레플리카

흔히 젊은 영혼들이 많이 타는 고속바이크입니다. 속도를 위해 허리를 숙이는 자세로 쏙쏙 다니는 일명 알차입니다.

안전을 위해 가죽재질의 슈트(이거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참 입고 있기 힘듭니다)를 입어야 하고, 나름 멋진 코너를 위해 공부와 연습을 열심히 하면서 탑니다. 근데 좀 위험하지요.

5) 오프로드

MTB 자전거 처럼 산과 들 그리고 냇가를 치고 달리는 바이크입니다. 가볍고 깎두기 타이어를 끼고 있지요. 한번 오프투어 나가면 몇번은 넘어지는것이 보통이라 대충 바이크꼴이 말아야합니다. 오프, 이거 은근히 중독성 있습니다.

운동도 되고, 짜릿 짜릿 합니다. 같이 라이딩하는 동료들과는 급속도로 친해집니다. 서로들 도와줘야 할일이 많이 생기니까요. 투어 마치고, 땀과 흙 범벅으로 같이 막걸리 한사발하면 꿀맛입니다. 오프는 꼭 두명 이상이 다녀야 합니다. 혼자서는 위험 하고 난감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6) 모타드

오프로드 처럼 가볍고 힘이 좋지만 온로드 타이어를 끼우고 있습니다. 도로위에서 그냥 쇼하





는 바이크입니다. 윌리(앞바퀴 버쩍 들고 달리기) 혹은 잭 나이프(정지 할때 뒷바퀴 들어 올리기) 등. 날좀봐요 하는 바이크입니다.

니다. 챙겨 입고 술먹으면 술취해 이리 저리 넘어져도 다칠 염려는 거의 없습니다. 보호 장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룹 라이딩때 보호장비 없이 바이크를 타고 모임에 나가면 같이 다니기를 거부 당합니다.

2. 보호 장비

취미로 바이크를 타는 분들 대부분 안전한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1) 헬멧

a. 풀페이스 : 완전 안전한 헬멧입니다. 보통 선수들이 착용하고 다니는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b. 시스템 헬멧 : 풀페이스 이지만 앞면 턱부분이 들어 올려 지는 헬멧입니다. 담배 피는분들에게 좋습니다. 단점은 가격이 조금 비싸고 좀더 무겁습니다.

c. 하프 페이스 또는 반모 : 통계적으로 바이크 사고시에는 악안면 쪽이 손상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류의 헬멧의 안전성은 완전 메롱입니다. 주로 배달의 기사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헬멧입니다. 비추입니다.

2) 라이딩복장과 부츠

딱 넘어지면 다칠만한 곳에 보호대가 적절하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흔히 스피드 스킷에서 고속으로 레이싱을 하는 선수들이 슬립해 넘어져도 부상 없이 일어 나는것은 보호장비 덕분입니다.



3. 바이크 가격과 속도

일단 바이크 취미생활을 할려면 바이크를 구입해야 합니다. 여행중 바이크를 세워 두면 지나가는 분들이 여러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거 몇 cc, 가격은 얼마, 그리고 땡기면 몇키로 까지 나가지? 입니다. 배기량은 보통 투어 목적이라면 250cc에서 1800cc 사이가 대부분입니다. 아메리칸 타입이 배기량이 높는데, 속도 보다는 토크감과 소리 그리고 진동을 즐기기 위해서 입니다. 일반적으로는 1000cc에서 1200cc입니다. 가격은 새차 기준으로 다른 라이더 들에게 끌리지 않는 뺨대나는 바이크를 사실려면 대충 3천만원에서 4천만원 정도 있어야 합니다(가정 범원앞에서 어색하게 택시 타지 않으려면 미리 비자금을 조금씩 차근 차근 준비해야 합니다 - 가족들은 바이크 가격을 반으로 후려 쳐서 이야기해도 비싸다고 합니다. 마치 제가 가지고 있는 오디오 가격과 비슷하지요. 진실을 알면 불편해 집니다). 깨끗한 중고를 사시면, 30%정도 가격이 낮아집니다. 중요한것은 자주 즐기는것입니다. 한달에 한번 라이딩을 한다면, 엄청 비싼 투자가 되겠지요. 빠른 바이크 속도에 대해서는 고속에서 300km/h를 넘어가는 바이크들 많이 있습니다. 아메리칸은 80~110km/h(이때가 가장 배기음 그리고 엔진 진동의 느낌이 좋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기종은 보통 100~140km/h정도의 속도로 투어를 다닙니다.

자신에게 어울리면서 어찌면 짜증나는 일상에서 가끔은 설레이고 흥분하게 만드는 취미를 가질 수 있다면 나름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4. 면허

배기량이 125cc이하라면 보통 가지고 계시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125cc 초과인 경우는 2종소형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저는 면허 시험장에서 3번 떨어지고 할수 없이 학원등록 하였습니다. 소위 학원면허 출신입니다. 학원 면허 출신은 라이더들 사이

에서 좀 무시 당합니다. 그냥 비밀로 하셔야 합니다. 문경시의사회 이용렬이비인후과의원 원장님은 6번째 도전후 합격하셨고 요즘은 퇴근후 몰래 밤마다 BMW 바이크를 타고 이화령, 수안보 등을 다니십니다.

5. 그룹 주행 방법

바이크로 취미생활을 하다보면 인터넷 카페에 가입을 하게 되고 소위 말하는 번개 공지를 보고 같이 라이딩을 하게 됩니다. 모인 사람들 중에는 고수도 있고 하수도 있겠지요. 그룹 주행을 할때는 선두 즉 대빵을 로드 마스터라고 부르고 자기 마음대로 대열을 이끌어 갑니다. 어디에 위험한 코너가 있고 어디에서 쉬어야 하며, 몇번째 바이크는 지금 기름이다 되어가고 있다는 등 모든걸 알고 있습니다. 중간엔 하수들을 대충 배열합니다(한줄로 세우면 대열이 너무 길어 지는 수가 있어 통제가 어렵습니다. 통상 두줄로 엇갈리게 세웁니다). 모임중 두번째 고수가 마지막에서 달립니다. 리어 마스터라고도 합니다. 낙오되는 멤버를 챙기기도 하고. 위험한 라이딩을 하는 회원이 있으면 중간 휴식때 잔소리도 하고 합니다. 아주 인원이 많아지면 로드 마스터 뒤쪽에 좌우로 wings 두기도 합니다. 교차로가 나오면 wings가 짹짹 좌우 도로를 막아 버립니다. 혹 신

호가 바뀌어도, 바이크 주행그룹이 다 지나갈때 까지 다른 차들의 진로 방해하고 뻥뻥하게 막고서 있습니다. 차량 운전자들이 엄청 짜증을 내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바이크 대열이 끊어지면 대열을 유지할 목적으로 중간에 긴 차량 추월을 시도 하게 됩니다. 중간에 배치된 하수들이 위험한 추월을 시도 하면 사고로 이어질수 있기 때문에 엄청 욕을 먹지만, 염치 없는 짓을 합니다. 다 헬멧을 쓰고 완전 위장을 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지요. 물론 두명의 wings이 로드 마스터 뒤로 복귀할때는 2열 주행 대열이 1열로 비켜 줍니다. 알짱거리며 비켜주지 않으면 나중에 리어 마스터에게 엄청 혼납니다. 도로에서 바이크 대열을 보면 심심하게 쭈키는듯하지만 나름 바쁘게 움직입니다.

6. 기타

술자리에서 집요하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히터나 에어컨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정답은 히터는 있지만 에어컨 있는 바이크는 없습니다. 기억해 두시길...

원고를 적으라는 명령을 받았고 두서 없이 글을 적었습니다. 모든 취미가 그렇듯이 반수는 몇번 해보고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그만 두게 되고, 그중 4할은 좋아라 하지만 적당히 즐기지요. 까칠한 1할이 매니아가 되는 듯합니다. 혹 바이크를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 계시면, 초반에 가족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주도면밀 해야 합니다. 들키면 백발백중 계속 바이크 타기 힘듭니다. 자신의 스타일이 바이크 매니아일까 아닐까를 알 때까지는 걸리지 않는것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좋습니다. 타보기 전에는 알수 없기에 어쩔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어울리면서 어찌면 짜증나는 일상에서 가끔은 설레이고 흥분하게 만드는 취미를 가질 수 있다면 나름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방사능 허용 기준치, 과학적인 안전 기준치인가?

“방사능은 그 피폭량에 비례하여 암을 발생시킨다.
이는 기준치 이하에서도 마찬가지다”
혹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안전한 방사능은 없다.”



2011년 3월 11일 일본대지진의 영향으로 후쿠시마 원전에 사상 최대의 핵사고가 발생하였고, 우리 국민도 이에 의한 피해를 입기 시작하였다. 그 전에 나오지 않던 요오드와 세슘이 공기 중에서 검출되고 있고, 빗물에서도 검출되었다. 앞으로 지하수와 수돗물에 대한 오염 여부가 면밀히 관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진다. 또한 우리나라 해수에 대한 오염도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들은 어떻게 상황을 인식해야 할 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

후쿠시마 사고 직후부터 우리 정부의 관리들은 꾸준히 “기준치 이하니까 안전하다”라고 언론에 발표하였다. 나 역시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이런 말을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여왔지만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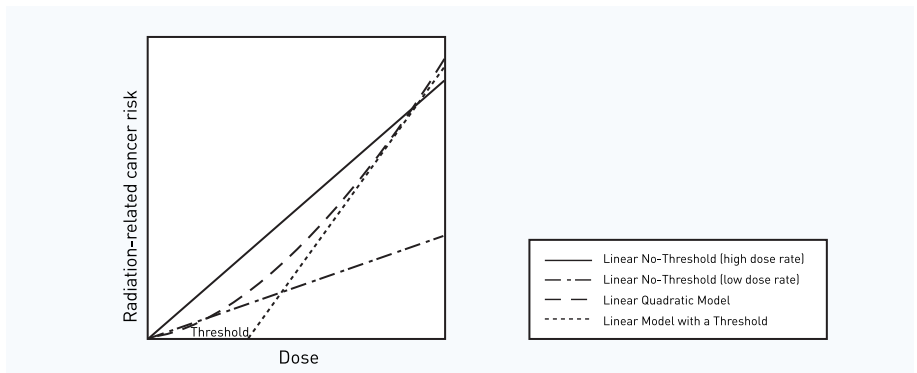
“안전하다, 혹은 인체에 무해하다는 말은 의학적인 판단인데, 의학적으로 정말 안전할까?” 이런 의문이 들자 곧바로 이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때마침 열린 학회에도 가서 논문발표를 들어보기도 하였다. 그렇게 약 1주일 이상 공부를 한 후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인체허용기준치는 과학적인 안전 기준치가 아니다.”

인체허용 기준치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내놓은 세계적 기구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 미국방사선방호위원회(NCRP) 등이다. 이들은 그간의 의학적 연구결과를 근거로 방사능 노출에 대한 인체의 영향에 관하여 동일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 결론은 다음 그래프로 간단히 설명될 수 있다.



김익중 교수
경주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동국대 미생물학 교수



방사능 피폭 이후 15년 ~ 60년에 걸쳐서 암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 피폭의 영향은 수십년 후 우리나라에서 암 발생의 증가로 나타날 것이다.

위 그래프에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나타나는 두 개의 선이 이른바 고행암의 그래프이다. 이들은 방사능 피폭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암발생률이 비례하여 증가한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다. 그래프에서 약간 곡선의 모양을 이루는 것은 백혈병의 그래프이다. 백혈병의 경우에는 직선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볼록한 그래프가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점선으로 되어있는 그래프는 이른바 “호메시스” 이론을 대변하는 그래프이다. 이 그래프는 역치(Threshold)가 있어서 이 역치까지는 피폭되더라도 암 발생이 증가하지 않고 역치를 넘어서야 비로소 암발생이 증가하기 시작한다는 의미이다. 이 호메시스 이론은 미국의 핵산업계가 주도하여 막대한 연구자금을 들여서 만들어낸 이론인데, 불행하게도 세계 의학계는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세계 의학계에서 인정하지 않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이론이 인체 데이터가 없기 때문이다. 세포수준, 유전자수준의 연구는 엄청나게 많지만 인체 데이터는 없다. 이에 비해서 세계 의학계가 위와 같은 직선 그래프를 얻게 된 것은 모두 히로시마, 나가사키, 체르노빌 피폭자들을 조사한 인체 연구결과를 통해서이다.

만일 “허용기준치 이하이므로 인체에 영향이 없다”라는 말이 진실이라면 위 그래프 중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역치가 있는 그래프, 즉, 호메시스 가 옳아야하지만, 세계 의학계는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방사능 피폭에 대한 인체영향은 다음과 같이 결론지을 수 있다.

“방사능은 그 피폭량에 비례하여 암을 발생시킨다. 이는 기준치 이하에서도 마찬가지다”

혹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안전한 방사능은 없다.”

세계보건기구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연간 1mSv 라는 기준치의 위험도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10,000명 중 한명의 새로운 암환자가 발생할 위험이다.” 즉, 우리나라 인구에 대비하면 약 5,000명의 새로운 암환자가 발생할 위험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지속되고 있는 정부 관계자의 발표, 즉, 기준치 이하니까 안전하다는 발표들은 모두 의학적으로 옳지 않다는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5,000명의 암환자가 새로이 발생할 위험을 “안전하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는가?

나는 우리나라의 의학계가 이 문제에 관하여 분명한 입장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까지 정부와 핵산업계는 의사를 제쳐놓고 국민 건강에 영향 유무를 말하는 등 의학계에 대한 월권행위를 지속하고 있고, 그나마도 옳지 않은 의학상식을 국민들에게 전파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의학계는 이를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 우리 국민은 후쿠시마 핵사고의 영향으로 만성적인 저농도 피폭상황에 놓여있다. 방사능 피폭 이후 15년 ~ 60년에 걸쳐서 암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 피폭의 영향은 수십년 후 우리나라에서 암 발생의 증가로 나타날 것이다. 체르노빌 핵사고에서 서유럽인들이 피폭된 경로는 주로 음식을 통해서였다고 2006년 우크라이나 정부가 발표한 적이 있다. 아마도 우리 국민에 대한 후쿠시마 핵사고의 영향도 같은 피폭 경로를 거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음식을 통한 피폭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어 보인다.





채무초과로 인한 어려움-회생의 길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하나로의 전문직 회생 법률 서비스

▶ 전문직 회생이란?

-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
- 전문직 자격(사업자)을 유지하면서 정상화 진행 /일상적인 금전 거래 가능
-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통하여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방지
-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최장 10년간 분할상환 /나머지 부채 탕감 가능

▶ 법무법인 우리 하나로 회생 업무의 강점은?

-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와 회계사(대구·경북 유일의 법무법인소속 회계사)가 공동으로 회생 사건 진행
- (주)씨앤유방 등 다수의 기업 및 개인 회생 사건으로 인해 축적된 전문지식
- 전문적인 상담 및 회생신청 이후 회생계획안 통과시까지 지속적이고 밀착된 서비스 제공

법무법인 우리 하나로와 함께 하시면,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Value added service for clients!!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변호사 권태형·성상희·정재형·남호진·김수호
김관목·진광석·황태운·노승진·김민정
공인회계사 권진욱

사무실 ■ Tel.053)587-3800 Fax.053)588-3806
담당직원 :윤종민 과장



의료관광 비즈니스도 스마트하게-

kt 스마트 메디 타워

대구 의료관광 비즈니스 특구의 수혜가 시작되는 곳
 성공비즈니스를 위한 완벽한 인프라를 갖춘 kt 스마트 메디 타워에서 성공을 선점하십시오.



kt 스마트 메디 타워만의 10가지 성공 포인트

1. kt가 **책임완공** 후 임대하는 오피스로 **자금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2.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의 사계를 만끽할 수 있는 탁 트인 전망
3. 대구시가 의료관광특구 지정을 추진 중인 **국채보상로 종각네거리** 대로변 입지
4. 경북대병원, 우리들병원, 경북대모발이식센터 등 **유명 병원시설 인접**
5. 2010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전국 3위로 **튼튼한 수요층 확보**
6. **채광과 개방감을 극대화**한 랜드마크 건축설계와 **호텔식 로비**
7. 기계식 대비 고객 편의성을 극대화한 **100% 자주식 주차장 (289대)**
8. 중대형 평형대의 **넉넉한 임대면적**과 **전 층 바닥 Access Floor 마감**
9. 의료와 휴식, 업무시설을 연계한 **복합형 MD 플랜**
10. kt만의 **최첨단 IT솔루션**과 완벽한 **보안경비시스템 구축**

■ 권장업종

| 1~2F | 패밀리 레스토랑, 커피숍, 편의점, 약국
 | 3~5F | 건강검진센터, 모발/미용/뷰티 클리닉

| 6~8F | 병원 (성형외과/피부과/치과/여성전문)
 | 9F | 휘트니스, 식당가 | 10~13F | 업무시설

2011년 7월 11일 준공예정! 계약 즉시 입주가능
 동인동 2가 종각 네거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앞

임대
문의

053) 422-1700





경련이 멈추면 **痛症** 도 멍습니다

**복부산통의 원인은 경련 -
이제부터 믿을 수 있는 진경제, 알기론으로 치료해 주십시오**

『Harrison's principle of internal medicine』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알기론의 주성분인 시메트로피움 브로마이드가 위장관 평활근에 대한 선택적 길항작용으로 낮은 부작용을 나타내는 진경제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위장관경련은 물론 광범위한 복부산통을 신속히 해결합니다.

위장관의 통증은 물론 산통* 및 비노기계의 경련성 급성 경축등 경련이 수반되는 광범위한 복부산통을 빠르고 강력하게 치료합니다.

확실한 약리기전에 근거한 강력한 진경제작용을 나타냅니다.

M3 muscarine receptor에 대한 선택적 길항작용* 과 antimuscarine 및 antiserotonin*의 dual action으로 위장관계·담도계·비노기계 평활근에서 발생한 경련 및 운동장애를 보다 효과적으로 완화시킵니다.

Ref.) 1. Harrison's principle of internal medicine 14th edition(1998~2001), p.1646-1648
2. Del Fabbro L. et al. Clin. Ter 83, 609, 1977
3. Drug of today - Scarpignato C, et al, Vol24, 859-876, 1998
4. Arzneimittel-Forschung Drug Research, sohiavone A, et, al vol. 35 796-799, 1985

▶ 위장관 평활근에 대한 선택성이 매우 높습니다.

십이지장 수축과 혈압강하 현상에 대한 항무스카린 약물의 효과

Compound	Inhibition of vagally induced hypotension	Inhibition of vagally induced duodenal contractions	GI Selectivity
	ED50(μg/kg)	ED50(μg/kg)	
Atropine	4.68	10.40	0.45
Methylscopolamine	1.07	4.00	0.27
Algiron®	12.80	3.88	3.30
Hyoscine-N-butyl bromide	20.70	17.80	1.16

* 마취된 고양이에게 미주신경을 자극하여 실험



부신피질호르몬제 처방 NO.1!



부신피질호르몬제

피디^정

메칠프레드니솔론



원료약품의 분량 1정 중

메칠프레드니솔론(U.S.P) ······ 4mg

효능 · 효과

1. 피부질환 : 천포창, 중증 다형성 홍반(스티븐스-존슨증후군), 박탈성 피부염, 수포성 포진양 피부염, 중증 지루성 피부염, 중증 건선, 균상식 육종
2. 알레르기성 질환 : 기관지 천식, 접촉성 피부염, 아토피성 피부염, 혈청병, 계절성 또는 다년성 알레르기성 비염, 약물과민반응
3. 교원성 질환 :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루푸스 신염), 전신성 피부근염(다발성 근염), 급성 류마티스성 심염
4. 내분비 장애 5. 류마티스성 장애
6. 안과 질환 7. 위장관계 질환 8. 호흡기계 질환
9. 혈액 질환 10. 악성 종양성 질환 11. 부종성 질환 12. 신경계 질환 13. 기타

보 험 코 드 A21950881

피디^정의 주성분인 **Methylprednisolone**은 기존 Prednisolone보다 **항염효과**가 강하고, 상대적으로 Mineralocorticoid의 작용이 약하므로 부종 발생 등의 부작용이 낮은 부신피질 호르몬제제입니다.

※제품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64 대륭테크노타운 13차 3층 / TEL:02)2109-3300 • FAX:02)2109-3388

